



목 차

발간사	2
의회구성	4
회기운영 현황	6
의안처리 현황	6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7
구정질문	23
5분 자유발언	73
상임위원회 활동	120
특별위원회 활동	134
의정갤러리	135
제9대 전반기 연구모임 활동	139
제9대 전반기 의원별 의정활동	142

발간사

GREETING OF CHAIRPERSON

국민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의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는 의회,
주민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여
믿음직한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9대 동대문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구민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항상 따뜻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대문의회보 제19호’에는 제9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열정적으로 펼친 의정활동을 담았습니다.

제321회 정례회부터 제325회 정례회를 운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대문의회보 제19호 발간을 통해 동대문구의회가 구민 여러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주민의 생각과 필요를 대변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대문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동대문구의회 의장 이 태 인

의회구성

9대 의장단

의 장



이태인
(답십리2동, 장안1·2동)



부 의 장



정성영
(전농1·2동, 답십리1동)

9대 운영위원회



이강숙 위원장
(비례대표)



정서윤 부위원장
(답십리2동, 장안1·2동)



성해란 부위원장
(비례대표)



김용호 위원
(전농1·2동, 답십리1동)



노연우 위원
(답십리2동, 장안1·2동)



안태민 위원
(답십리2동, 장안1·2동)



이규서 위원
(답십리2동, 장안1·2동)

9대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
(제기동, 청량리동)



김용호 부위원장
(전농1·2동, 답십리1동)



이규서 부위원장
(답십리2동, 장안1·2동)



정성영 위원
(전농1·2동, 답십리1동)



최영숙 위원
(용신동)



박남규 위원
(회기, 휘경1·2동)



김세중 위원
(회기, 휘경1·2동)



정서윤 위원
(답십리2동, 장안1·2동)



성해란 위원
(비례대표)

9대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
(제기동, 청량리동)



노연우 부위원장
(답십리2동, 장안1·2동)



안태민 부위원장
(답십리2동, 장안1·2동)



이강숙 위원
(비례대표)



김창규 위원
(이문1·2동)



김학두 위원
(이문1·2동)



서정인 위원
(용신동)



이재선 위원
(전농1·2동, 답십리1동)



장성운 위원
(전농1·2동, 답십리1동)

회기운영 현황(제321회~제325회)

회 기	개회일	폐회일	일수	주요내용
제321회 정례회	2023.5.26.	2023.6.21.	27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결산승인,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제322회 임시회	2023.7.18.	2023.7.21.	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일반안건 처리
제323회 임시회	2023.9.13.	2023.9.20.	8	구정질문,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처리
제324회 임시회	2023.10.19.	2023.10.24.	6	일반안건 처리
제325회 정례회	2023.11.28.	2023.12.19.	23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청취, 2024년도 예산안, 구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의안처리 현황(제321회~제325회)

구 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보류	철회
		계	의원	구청장	원안	수정			
총 계		121	73	48	87	16	2	13	3
조 례	소 계	91	58	33	63	12	2	11	3
	제 정	38	36	2	25	6	1	4	2
	개 정	49	22	27	35	6	1	6	1
	폐 지	4	0	4	3	0	0	1	0
결의안		6	6	0	6	0	0	0	0
동의안		4	0	4	3	0	0	1	0
승인안		2	0	2	2	0	0	0	0
기 타		18	9	9	13	4	0	1	0

회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잦은 상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조례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관련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및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 삭제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동대문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학금 종류 및 선발기준 등을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의원
- 주요내용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학두, 노연우, 이재선, 김창규 의원
- 주요내용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세종, 이규서, 정서운, 성해란, 최영숙 의원
- 주요내용 : 관내 우수 창업기업을 중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재정투자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펀드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용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의 기업 지원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며, 아울러 기금운용 등과 관련한 상위 법령,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사항을 반영해 인용 법령 등을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이재선, 노연우, 김학두, 김창규 의원
- 주요내용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풍수해로부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운, 김용호, 최영숙, 김세종, 박남규, 정성영, 장성운, 이규서, 손세영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의 신청 요건인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골목형 상점가 신

청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안태민, 이강숙, 성해란, 김용호, 노연우, 이규서 의원
- 주요내용 :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경조사 발생 시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를 확대하고, 직원의 후생복지와 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32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9월 25일로 만료됨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인 2028년 9월 25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동대문구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하며,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이 2022.12.31.로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재단 단원에게 활동비·재해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문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여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구민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가 자주 있으나 대형 생활폐기물 품목에 없는 것은 추가하고, 기존 품목의 규격을 세분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정서운, 손세영, 노연우, 김창규, 김용호, 박남규,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20대 청년이 오랜 기간의 간병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부담으로 중병의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비극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년·청소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서정인, 김창규 의원

• 주요내용 :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한지엽, 장성운, 김세중, 노연우, 이규서, 안태민, 최영숙 의원

• 주요내용 :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일반버스나 지하철도 등으로 연계하는 필수 교통 수단으로 주민의 교통편의와 직결되고 있으나, 수년째 기본요금 동결, 코로나19 등으로 운송수입이 급감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서울시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구도 관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으로 마을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토록 하여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김세중, 성해란, 김용호, 안태민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과 권익 향상,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정서운, 김용호, 박남규, 노연우,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주민들의 영화·미디어 문화 향유의 증대와 편의를 위하여 방문 요일과 시간을 확대하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영화·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및 기업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용호,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 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촉진하며, 안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운, 손세영, 노연우, 김창규, 김용호, 박남규,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의 확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불법 마약류 확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박남규, 이규서, 성해란,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청년 상인에 대한 육성과 지원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상인에 대한 역량 제고 및 자생 기반 제공 등으로 창업지원의 성과 창출 및 상권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함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서울시 관련 조례 폐지·시비 지원 종료 및 우리구 '23. 1. 1.자 조직 개편에 따라 마을협치팀이 폐지되어 우리구 협치사업을 종료하였으며, 타 사업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조하므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김용호, 이강숙, 최영숙, 장성운,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최영숙, 김세종, 서정인, 이규서, 정서운, 김용호, 김학두, 장성운,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 따라 국가의 소상공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내 일정 지역에 밀집되어 특성화된 지역을 발굴하여 특화거리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의 개정(2023. 3. 28.일부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성해란, 안태민, 박남규, 이규서, 정성영, 노연우,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 관내의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구가 직접 인증하고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해 일대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동대문구의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한지엽, 이강숙, 안태민, 김학두, 이재선, 성해란, 김창규 의원
- 주요내용 :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지원하여 사회보장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복지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노연우, 이강숙, 이재선, 안태민, 서정인 의원
- 주요내용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조례이나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 간의 보고 체계만 명시되었을 뿐 구민들을 위한 재난 전파 및 경보 시스템 작동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작동할 수 있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상태를 유지하고 예보·경

보 발령 시 발령사유 및 대피 방법 등을 담은 재난 정보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재선, 안태민, 이강숙, 한지엽, 노연우, 김창규, 서정인, 장성운, 김학두 의원
- 주요내용 : 지구온난화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창규 의원
- 주요내용 :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1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되었음. 그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관내 공공분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제도권 내에서 보호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2019년 6월 1일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 상승으로 서울시에 서 시행한 '2023 서울시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용역 보고서'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1995년 이후 동대문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해 왔으나, 2010년 12월 환경자원센터 가동으로 기금 재원을 이자 수입에만 의존하게 되어 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또한 기금 존속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법정무기금인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 및 재원을 정비

하고, 주변지역 주민 지원 협의체인 환경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안태민, 김학두, 박남규, 노연우, 김창규, 성해란, 이재선, 이강숙, 서정인, 한지엽 의원
- 주요내용 :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같은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주민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이재선, 안태민, 김학두, 노연우,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최근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서윤, 이강숙, 노연우, 서정인, 김창규, 김용호, 장성운, 안태민, 최영숙, 김세중 의원
- 주요내용 : 최근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과 피해사례 급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까지 잇따르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관련 분쟁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안태민, 한지엽, 이재선, 김창규, 이강숙, 김학두 의원
- 주요내용 :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및 보행 환경을 개선하며, 미세먼지 저감,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제32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박남규, 정성영, 이규서, 한지엽, 손세영, 이강숙 의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정과 관련된 교육 및 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 ‘현역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까지 확대 시행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김용호, 이규서, 안태민, 성해란, 이강숙, 노연우,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규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명료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이규서, 안태민, 김용호, 이강숙, 노연우,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잦은 조례 개정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과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조례의 안정성과 명료성을 보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노연우, 안태민, 이강숙, 서정인, 정서운, 손세영,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현 조례안에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규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조항이 있는 바, 납세자에게 유리하고 효율적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의 권리 증진 및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서울시와의 정책통일과 양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의견 중합 검토하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동대문구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제명과 인용 조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장성운, 이규서, 안태민, 노연우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한방진흥센터(이하 “한방센터”)는 서울특별시 한방산업특구 내에 위치한 앵커시설로서 한 의학을 주제로 전시와 교육, 체험 등을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 협회(이하 “협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한방산업 발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하여 향후 협회가 한방센터에서 한방산업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대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 신설하고, 아울러 구청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자구 등을 수정하는 등 법규의 형식과 체계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
- **주요내용**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례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서정인, 정서윤, 김용호, 최영숙, 김세중,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전국 총 4,482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서울 지역 무연고 사망자가 1,109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임. 1인 가구 증가와 빈곤 등으로 장례 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사후 인격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제공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손세영, 노연우, 안태민, 장성운, 이규서 의원

- **주요내용** : 상위 법률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임과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신설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등 그동안 미반영 되었던 개정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규서, 성해란, 김용호, 손세영, 정성영, 안태민, 박남규 의원
- **주요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9조 규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안태민, 김세종, 노연우, 이강숙, 김학두, 이재선, 한지엽 의원
- **주요내용** :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제32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용호, 장성운, 노연우, 정성영, 이규서,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정성영, 이강숙, 손세영, 노연우, 서정인, 이규서 의원
-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장성운, 이규서, 성해란, 손세영, 김용호, 정성영, 정서운, 최영숙 의원
- **주요내용** : 동대문구를 넘어 나라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 기업을 위하여 장기적·단계별·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내 자체 선순환을 이뤄냄으로써 동대문구만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규서, 김용호, 손세영, 서정인, 노연우, 김창규, 안태민, 정성영, 최영숙, 정서운, 김세종 의원
- **주요내용**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2. 4. 26.) 및 시행(2023. 4. 27.)됨에 따라 상위법과 현황에 맞도록 기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노연우, 안태민, 최영숙, 김세종, 정서운 의원
- **주요내용** :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명칭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 상 용어와 관련 규정 등을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며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박남규 의원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개정·시행으로(2023.3.21. 개정, 9.22. 시행)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 폐지규칙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안태민, 노연우, 김용호, 정서운, 이규서,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본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관심 분야 및 전문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000. 10. 14.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음. 금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본 규칙의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발 의 자 : 이강숙, 안태민, 노연우, 김용호, 정서운, 이규서, 성해란 의원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문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요건을 갖추어 의회에 등록한 연구단체에 대해서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경비 관련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발 의 자 : 노연우, 안태민, 서정인, 김창규, 김학두, 김용호 의원
- 주요내용 : 현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조례명은 ‘출산 장려’로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여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짐. 이에 동대문구에 출생·양육친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조례의 용어 중 출산을 출생으로 전부 수정하고 조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양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발 의 자 : 성해란, 안태민, 노연우, 김세중, 서정인, 최영숙, 한지엽, 김학두, 정서운, 이재선,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고유한 재능과 정서발달, 자아 정체감 등을 키워나갈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증진,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발 의 자 : 서정인, 김창규, 안태민, 노연우, 이강숙, 이규서, 장성운 의원
- 주요내용 : 이 조례는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장구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발 의 자 : 김학두, 김창규, 이강숙, 최영숙, 한지엽, 이재선, 안태민, 노연우 의원
- 주요내용 :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주차요금 부과 시 기준이 되는 급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다자녀 지원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세 자녀 이상 → 두 자녀 이상)을 확대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부터 8년간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초과근무 연가전환 규정이 신설되고, 제7조제1항에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공무원 연가가산 규정과 제7조의7제2항 별표1의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시 경조사 휴가일수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발 의 자 : 동대문구청장
- 주요내용 : 부서별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재구성하며, 민선8기의 구정 추진력을 안정적으로 강화하고자 행정기구를 재조정하고자 함

정문 그칠



이강숙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Q1 민선8기 대표적 역점사업(꽃의도시, 태극기)

A 전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녹색정책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지난 1월 30일 동대문구 꽃의 도시를 선언하였음. 청량한 터전, 함께 가꾸는 일상, 꽃 피는 동대문구를 비전으로 하여 4월부터 도심에 가로정원과 교통섬, 배봉산, 중랑천 산책로 등에 주민이 꽃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관목, 유실수, 초화류 등을 식재하였음.

전농동 도서관 부지에는 초화원 및 생태학습장을 조성하여 9월 21일 개원을 앞두고 있음. 향후 동대문구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꽃의 도시 사업으로 늘어난 도심 녹지를 주민과 더불어 조성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공원녹지를 지속 확충하고 공원 시설물 개치를 꾸준히 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음. 그리고 이강숙 의원님께서 태극기가 대한민국 존엄성을 상징한다는 데에 적극 공감함. 이번 태극기 모형 제작은 존엄성을 훼손할 의도가 없었으며, 포토존을 활용한 일종의 상징물로 활용을 한 것이고 의례와 의식의 태극기가 아니라 태극기의 상징성을 활용한 태극기 작품임을 말씀드리며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2 민선8기 대표적 역점사업(탄소중립도시)

A 「탄소중립 기본법」상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대기 중에 배출, 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

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0'이 된 상태이며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 세계 13위임. 우리나라도 2021년도 9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22년도 3월 25일에 시행에 들어갔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세계적·국가적 시책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이행 실천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에 있음.

올해 우리 구는「탄소중립 기본법」제12조와 제40조에 의거해서 2023년에서 2033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2050 동대문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또 2027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2차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또 '내 삶을 바꾸는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복도시 동대문구'를 비전으로 해서 2028년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58만톤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2040년까지 7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환경부 통계가 2020년도 자료까지만 산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2020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600만톤이며 우리 구는 153만톤임.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 기준 연도인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탄소 배출량은 4,707만톤, 그중 우리 구는 158만톤으로 서울에서 16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 구 부문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부문이 91%로 가장 높고 산업공정 5%, 폐기물 4%순으로 배출되고 있음. 에너지 부문 중에 가정에서 37%, 상업에서 28%, 도로 수송 24%순임.

올해 우리 구는 5개 부문 62개 세부과제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4개 부문 36개 사업인 동대문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 바 있고 반기별 1회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점검해 나가고 있음. 탄소배출 감축 목표 설정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정립하는 시작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 9일 2050 동대문구 탄소중립 선포식을 갖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환경 그린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였고, 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7월 1일부터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제고 방안의 발굴은 물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사업 점검, 탄소중립 구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건물이나 폐기물, 수송 등 각 분야별 온실가스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 이행 문화 확산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선8기 대표 역점사업인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위해 현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소중립 문화확산을 위한 이행 기반 구축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형 모빌리티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탄소중립 기술과 예술을 접목하여 탄소중립 미래도시 동대문구를 상징할 수 있는 탄소중립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 및 커피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해외 선도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해외도시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자 함. 앞으로 동대문구가 미래에 선도하는 탄소중립 도시가 되어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Q3 민선8기 대표적 역점사업(스마트도시)

A 복잡한 도시 문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신 ICT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가 부각되고 있음. 앞으로 기존 도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로 변모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 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스마트 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서 현재 스마트 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완료되면 보다 구체적이고 우리 구에 적합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우리 구는 스마트 도서관 지능형 CCTV, 로봇 재활사업 등 총 22개 부서에서 61개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 스마트 보안등 구축 등 12개 부서에서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2024년부터 3년 동안 총 5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우리 구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 집중해서 스마트 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먼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음. 스마트 도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산·학의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임. 이를 위해서 우리 구는 동대문구 스마트 도시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자문심의를 위한 스마트 도시 사업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음. 향후 지속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두 번째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음.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CCTV 통합 관제 개선, 스마트 미디어폴 구축 등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음. 데이터 기반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음. 도시의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강화해 나가겠음.

네 번째는 환경 친화적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임. 탄소 저감을 위한 에너지 관련 스마트 시설 구축, 또 전기차 충전소 확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수집 처리 등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음.

마지막으로 주민의 안전 및 복지 관련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살핌 정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또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의원님께서도 성동구나 중랑구 사례를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 구도 성동구나 중랑구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고, 또 일부 선도 도시로 성동구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음. 그런데 저희는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지금 시작 단계이고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도 이제 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가 있음. 이런 것들이 구

체화되면 저희가 성동구나 중랑구에 못지않게 스마트 도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첨단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결국에는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환경 또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대문구가 미래도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4 민선8기 대표적 역점사업(탄소중립도시) (보충질문)

A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또 목표를 설정하는 게 부서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건 쉽지가 않은 상황임. 그래서 용역 같은 걸 통해서 수치를 받아보고 저희 동대문구가 2030년, 2040년 목표 수치를 제시하게 되는데 저희가 동대문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물을 받았음.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2020년도까지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이후의 연도는 예상치로 나와 있는 부분임.

그런데 탄소중립 배출 감축을 위해서 우리가 상업 분야나 도로 수송 분야, 공공 분야, 제조업 분야, 건설업 분야, 폐기물 분야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데이터를 내서 얼마를 줄었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부분은 저희가 기후환경과와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또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기본법」이 20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황에서 지역의 탄소중립이나 녹색 성장에 관련해서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부분들임. 그러다 보니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장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거기에 근거해서 동대문구에 탄소중립 정책들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운영하게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찾아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Q1 배봉산 일부 배드민턴장 관련?

A 말씀하신 생태공원 확장에 적극 공감함. 쾌적한 환경과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음. 배봉산 근린공원에는 10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모두 적절한 시설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야외 배드민턴장을 실내로 변경하려면 최소 15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적절한 토지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여건임. 양해 부탁드립니다, 배봉산이 주민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Q2 용두근린공원 차광막 설치 관련?

A 막구조나 에어돔 설치 시에 조성 면적 대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해당 부서에 서 구조 검토를 한 결과 무엇보다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를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설계비 8,000만원 정도를 낭비할 가능성이 높아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확보된 예산으로는 주민 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과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음.

Q3 배봉산 일부 배드민턴장 관련(보충질문)

A 먼저, 배봉산 배드민턴장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열려 있는 상태임. 하지만 회원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다른 분들이 시간대를 잡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특정 사용 시간대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타 구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고 예약제나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Q4 용두근린공원 차광막 설치 관련(보충질문)

A 저희가 구조 검토를 다시 보고 상의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노연우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Q1 경희대로 기부채납 요구 관련

A 경희대로에 경희학원 소유 8필지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경희학원은 우리 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우리 구는 지난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였고 약 21억원의 부당이득금 및 임료를 지난 2022년 10월 31일 경희학원에 지급하였음. 판결 후 6년 8개월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이로 인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임. 지연손해금은 경희학원이 지급명령 청구 시 당장이라도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당 기관 간의 지연손해금 이자 기산일을 언제로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실정임.

Q2 지연손해금 이자 5억원 관련

A 지연손해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채권 채무로서 지연손해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 등 별도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며, 지난 8월 23일 경희학원으로부터 지급 명령 절차에 대한 전화 문의가 있었음. 지연손해금 액수에 대해 경희학원과 우리 구의 의견이 달라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변호사 비용, 착수금과 송달료, 인지대 등으로 약 5,266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구 패소 시 상대 변호사 비용 등 1,392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경희학원 측과 소송에 이르지 않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경희학원과 우리 구 간 차액이

약 1억 7,280만원에 달하므로 현재는 소송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Q3 MOU 이행 촉구 관련

A 2022년 상반기에 경희학원과 분쟁토지에 기부채납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처리되지 못하였고 지난 2022년 8월 경희학원과 동대문구가 MOU를 체결하며 구에서는 양해각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경희학원과 실현 가능한 주민 상생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음.

경희대에서 임시 사용 중인 5개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희대에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용 승인을 진행할 예정임. 임시사용 승인 연장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공공도로로서의 기능 확보를 위해 도로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경희대 측에서 우리 구에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경희대 측과 작년에 협의한 바 있음. 경희대 측 입장은 현재 도로관리대장 작성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측에서 도로관리대장을 첨부한 사용 승인을 우리 구에 신청하지 않아서 경희대 측의 자료 제출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현재 경희대학교 내 총 5개의 건물이 임시사용 승인 중이며 2024년 만료 예정 4건, 2025년 만료 예정이 1건임. 경희대학교 측에서 도로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우리 구에 사용승인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양해각서상 주민상생 방안과 공공도로로서의 기능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

MOU에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이 상호 합의된 적이 없으므로 MOU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경희학원은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였으며,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1958년에서 1962년까지 조선주택영단, 현 LH공사 외 1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바, 당시 환지 처분이나 기부채납 대상은 아니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부당이득금 및 지연 이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하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판결 후 6년 8개월이 지난 후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함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지금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지 않아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Q4 경희대로 기부채납·지연손해금 이자·MOU 이행 촉구(보충질문)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월 23일 경희학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의사를 밝히는 전화가 있었는데, 이 자액 산정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음. 경희학원 측에서 2023년 9월 30일 기준 지급명령 청구시「지방재정법」제82조에 근거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지연손해금은 약 3억 8,000만원으로 계속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상황임. 경희학원에서 발송한 경희대로 관련 동대문구 경희학원 간 협의 사항 진행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에서「사립 학교법」에 따라 ‘경희학원은 부당이득금 등 수령액을 경희대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상반기에 쟁점 토지의 분쟁 해소를 위해서 경희학원 측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거쳤으나 소유권 변경으로 인한 교지 확보율 문제 및 이사회의 배임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사용으로 진행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경희대로 진입로에 대한 현안 사항은 2016년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및 임료가 발생하였고, 특

히 도로사용료가 매년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임. 이에 양측 기관은 작년 8월 MOU 체결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참고로 최근에 경희대에 MOU 이행을 위해 상생 협약 이행을 위한 자료를 보내온 것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주민 상생 방안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경희대와 협의 중에 있고, 추진 대안으로 장학기금 및 평생교육 사업이 있고, 또 그 외에도 도서관 이용이나 다른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조만간 내부 논의 및 경희대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임.

부당이득반환금은 교비 회계에 해당되어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만큼 주민 상생 방안을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하지만 기존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만큼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양측 기관이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협약서 체결에 따른 후속 절차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올해 7월 경희학원과 협의를 하였고 최근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경희학원 측의 협의 내용을 토대로 본 사업에 대한 초안을 우리 구에 전달하였으며 내부 논의를 통해 양측이 만족할 수 있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할 예정임. 경희대학교 측에 저희가 도로 관리대장을 첨부해 온 사용승인 신청이 있으면 '임시사용 승인'에서 '사용승인'으로 전환해 주는 것을 하고 있음. 이 도로관리대장을 첨부하여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 부지를 도로로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부채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됨. 이 부분을 저희가 경희대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음.



정성영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Q [정성영 의원] 9대에 들어와서 19명의 의원님 중에서 322회까지 14명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했는데 무슨 내용의 질문을 했는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대부분 기억하고 있고 특히 정성영 의원께서 재생물센터 추궁하신 것 잘 유념하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저는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저는 2014년도에 신답 고가차도 철거 문제를 제안했고 지난번에 다시 또 했음. 거의 십 몇 년 만에 했는데 지금 그대로임.

A [이필형 구청장] 서울시 도로라서 서울시에다 의견은 내지만 서울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Q [정성영 의원] 매년 답변 내용이 서울시에 의견 제시를 해서 하겠다,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농동·답십리, 나머지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새로 유입되고 신도시가 됐음. 과거하고 다른 상황임. 신답고가차도에 하루에 몇 대가 출·퇴근 시간에 다니는지 차량통행 평가 조사 한 번 해봤는지? 청량리 역세권 발달로 인해서 강남으로 가는 차량들은 다 그리로 몰리게 돼 있음.

A [이필형 구청장] 그건 미처 못 했으나 그쪽을 저도 이용 많이 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보였음.

Q [정성영 의원] 낮에는 심하지 않음. 저기 장안동 그 밑에서부터 밀려오는 게 문제임, 여기서 가는 건 괜찮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람.

A [이필형 구청장] 그렇게 하겠음.

Q [정성영 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했던 환경자원센터 말씀하셨는데 화재는 관리부실이 맞는지?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화재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아니었고 현장에 가보니 일부분만이 전소된 상황이었고, 결국 저희가 플라스마 설치해서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에 RTO에 휴즈가 나가서 점검했는데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그냥 보기에는 잘 운영되는 것 같으나 처음에 환경자원센터 설계 도면하고 지금 운행되는 기계 설비하고 차이가 많이 있음. 그렇게 되면 전에 구정질문에도 있듯이 30년 후에 동대문구로 회수했을 때 고물만 오게 돼 있음.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점검하셔서 설계 도면대로 바꿔야 함.

A [이필형 구청장] 청소행정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단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우리가 인수했을 때 조기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완전히 폐기화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을 들이면 인수해서 조기에 운영할 수 있는지 조기 운영 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공기 정화시설 설치한다고 그래서 환경자원센터가 청결해지는 건 아님. 환경자원센터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거기 안에 쓰레기를 쌓아놓지 말고, 폐기물 쌓아놓지 말고 오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A [이필형 구청장] 그렇게 하겠음.

Q [정성영 의원] 노점상 문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노점상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전국장께서 다른 데로 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몇 달 동안 회의도 없음. 그렇지만 도시경관과, 노점상 관리하는 과에서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봤음. 노점상하고 도시경관과 공무원 직원들하고 과 직원들이 거기서 반대하는, 치우려고 하는 노점상들이 덤비는 걸 봤음. 먹살도 잡히고 칼로 위협도 하고 그런 거 다 봤음. 이런 걸 하는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폭행을 당해도, 안 때렸는데도 맞고소하면 공무원들이 당하게 돼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일단 우리 직원들에게 소송이 걸리면 전부 다 고문 변호사들이나 구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리고 일종의 특별휴가 같은 것을 줘서 위로를 하고 있고 현재 계획한 대로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음. 추후 저희가 종합적으로 방향과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겠음.

Q [정성영 의원] 2022년 12월 29일에 김세종 의원님께서 발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이런 공무원들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하거나 협박 당할 때는 동대문구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라는 조문이 있음.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상을 정리하는 그 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주차 딱지라든지 흡연 단속하면서 싸움이 남. 싸움 나고 폭행당하기 싫으니까 제대로 안 함.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단속할 때 법 없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청장께서 격려를 하시고 지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음.

A [이필형 구청장] 적극적으로 하겠음.

Q [정성영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지난번 5분 발언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지금 청량리역 앞인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밥을 퍼주고 있음. 이렇게 되면 제2의 ‘밥퍼’가 생기는 꼴임. 그리고 깨끗하게 만든 보도에 불법 오토바이, 자전거 막 대놓고 흡연 부스까지 인도에 만들어 놓으니까 지역 주민들은 민원이 많은 상황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함. 흡연자의 권리도 있는데 이렇게 도로에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부스를 만들었다는 건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함.

A [이필형 구청장] 흡연자의 권리들도 있는 부분이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음.

Q [정성영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노숙인들이 자주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 노상에서 술 먹고 방뇨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음.

A [이필형 구청장] 그렇게 하겠음.

Q [정성영 의원] 노점상을 지금 계속 치우는데도 지역 주민은 계속 불만이 나옴. 또 한 가지는 저는 동대문구의회나 동대문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동대문구 의회에 바란다.’에 주민이 올리는 민원 사항을 거의 매일 보고 있음. 비밀 민원은 내용은 못 읽어보지만 제목만 보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는 감지하고 있음.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그거 보고 계신지?

A [이필형 구청장] 보고받고 있음.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전부 뽑아서 대책까지 해서 보고 있고, 그런데 일단 저도 제목만 보는 그런 실정임. 민원실 통해서 보고받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보고만 받지 마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음. 저하고 이규서 의원하고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은 자주 만나서 우리 지역에 민원 나오는 곳, 우리 지역에 개선해야 될 곳을 자주 찾아다님. 그러면서 구정질문도 준비하고 또 구청의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도 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한 내용은 거의

현장에 있으니 한 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A [이필형 구청장] 제가 참고로 여기서 5분 발언 나오는 거는 의회 회기 중에 현장에 반드시 가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가보시고 여기 공무원 여러분께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처리가 됐는지 확인도 한 번 해보시고, 그래야 오늘처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문하는 내용이 안 나옴.

박남규의원님께서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의 처리 결과에 대한 동대문구의회 조례를 만들고 있는걸 보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 생각은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음. 다시는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일 열심히 하시는 이필형 구청장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이필형 구청장] 잘 알겠음.

Q [정성영 의원] 동대문구 문화재단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미디어센터, 한방진흥센터, 영취원, 세종대왕기념관, 선농단, 여러 곳을 같이 돌아다니고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찾아다녔음. 그런데 눈에 띄게 개선된 곳은 미디어센터 한 군데임. 또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은 한방진흥센터임. 그러나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는 선농단은 발전이 없고 더 퇴보를 하고 있음. 그것을 보면서 ‘야, 문화재단 사무실이 여기 있는데 어찌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 이필형 구청장님, 선농단 몇 번 가보셨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많이 가 봤음.

Q [정성영 의원] 가보면 손님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음. 문화재단 사무실을 확대하기 전에는 거기에 보이차 끓여서 주시는 분도 있고 붓글씨 가르쳐 주는 분 있고 이런 분들이 반겼음. 그러면 외국인이 오면 보이차 파는 분이, 붓글씨 가르치는 분이 안내도 하고 그랬음. 그런데 지금은 없음. 문화재단이 거기 왜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제가 오고 나서부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문은 갖지 못했음.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일단 제가 왔을 때는 문화재단 대표도 없었고, 그리고 기능 자체도 거의 없었음. 그래서 일단은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조직 정비를 해놨고,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한방진흥센터도 그렇고 우리 구의 문제는 본래적 의미의 규칙이나 조례나 이거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게 좀 많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조만간 그것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조직개편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저번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답십리 영화미디어센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부실시공·부실공사 지적을 하고 손님도 안 찾아오는 유령 같은 미디어센터라고 했음. 그런데 지금 활성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지난 7월에 방문객이 10,000명이 넘었음. 저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오늘 몇 명, 몇 명 확인하고 있음. 알고 계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보고받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사실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가 당초에 우리가 지향했던 거와는 좀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어떤 의미에서는 주민 친화형으로 마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함. 일단은 주민 편의 공간으로 미디어아트센터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디어아트센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개선점이 좀 많이 있음.

Q [정성영 의원] 방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마술 수업은 토요일, 일요일 10시, 14시에 함. 적정 인원은 25명에 7,000원씩 받음. 그런데 13명 이하면 폐강을 하라고 시킴. 12명 신청하면 폐강하라는 지시가 내려옴. 한 가지 예로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7개가 있음. 도서관에서도 강좌를 여는데 보통 10명을 신청 받고 거기는 강의료도 안 받으면서 한 명만 와도 강의를 함, 마술 강사는 1회 출연료 하루에 15만원인데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강사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미처 생각하지 못했음.

Q [정성영 의원] 동료의원님과 함께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을 거의 다 다녀봤는데, 가서 팸플릿 하나 달라니까 “없습니다”, “팸플릿 주세요” 하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주세요” 하니까 컴퓨터 사이트에서 출력해 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일곱 군데 홍보 예산이 3억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 다 어디로 갔는지?

미디어센터에 영화배우 출입을 금하고 있음. 답십리 영화미디어센터 활성화시키려고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하는 사람 센터장 시켰는데 더 홍보하려고 영화배우, 가수, 탤런트 오라고 하면 못 오게 함. 이게 문화재단에서 제대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저는 문화재단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영화 미디어 예술 특화 플랫폼을 만드는 곳이 미디어아트센터지 배우를 데리고 와서 인원만 늘리는 것은 단견이라고 생각함. 일단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서 배우가 녹아 들어가야지 배우를 보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미디어아트센터에 방문객이 없어도 된다는 뜻인지?

A [이필형 구청장] 그것과는 다름. 방법론의 문제인데 일단 미디어아트센터는 조직 운영상의 문제와 조직의 목표 이것이 많이 혼동되고 있음. 그래서 제가 재단이 운영하는 조직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걸 찾자고 재단 대표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음. 그래서 일단 답십리 미디어 아트센터가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많은 문제는 있지만 아직 센터장이 온 지 한 1년도 아직 안 됐고 지금 시행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원맨쇼를 한다든지 1인 플레이로 해서 조직을 망가뜨리면 저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함.

Q [정성영 의원] 구청장님 답변에 저도 수긍함. 그렇지만 조직에서 끼리끼리 패거리 조직을 짜면 안 됨.

A [이필형 구청장]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 같음. 저도 조직을 운영하지만 조직은 조직의 장이 모든 것을 책임 짐. 조직의 장이 자기 조직 장악을 못 한다면 그것은 조직 운영의 문제고 리더십의 문제라고 봄. 그것이 재단이 관여를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조직을 운영한다면 이 공조직이 필요한 이유가 없을 것임.

Q [정성영 의원] 그게 지금 문화재단 대표가 하는 짓임. 몇 명이서 흔들고 있음.

A [이필형 구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음. 문화재단 대표는 원칙에 의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

Q [정성영 의원] 얼마 전에 동대문구의회에서 미디어센터 조례가 통과됐음. 그 조례에는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이번에 또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근무자를 채용하면 나중에 그분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라면 안 할 것임. 지금 도로경관과에서 인력 채용을 할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근무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채용함. 이런 차이점을 보고 개선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A [이필형 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재단 대표에게 보고를 받아보겠음.

Q [정성영 의원] 얼마 전 지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이 미디어센터를 감사했는데 감사 결과 아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알고 있음.

Q [정성영 의원] 감사 결과에 미디어센터는 독립을 시키는 게 좋다는 게 나와 있는데 많은 생각,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음.

A [이필형 구청장] 아직은 운영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얼마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르게 조직을 바꾸면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어느 조직이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한이 필요하고 지금 센터장도 잘 하고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직은 지시와 명령 계통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봄. 보다 더 시너지가 나오려면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미디어아트센터라고 하는 본래적인 조직 기구에 충실하는 것이, 목표에 충실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음. 현재 재단 대표에게 제가 전권을 위임한 상황임. 의원님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경영 진단이나 성과를 근거로 나중에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음.

Q [정성영 의원] 답변 내용은 저도 이해하고 있음. 그러나 일단은 미디어센터나 어디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A [이필형 구청장] 그렇게 하겠음. 답변을 드리면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장은 스스로 여건을 만드는 것임.

옆에서 누가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 조직은 가지 않음. 조직의 장이 된다고 하면 그 조직을 잘 통솔하고 이끌고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조직원이라고 생각함.

Q [정성영 의원] 도서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음. 도서관은 그동안 존경하는 노연우 의원님께서도 독서실 폐관 문제로 구정질문도 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음. 지금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곳도 있음.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음.

제가 작은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보니 작은도서관에서도 독서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 그래서 용두어린이 영어 도서관이나 이문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아서 안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는 용두 도서관이나 배봉산 도서관 등 여러 군데는 독서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이거는 전문가가 있는 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는 도서관 전문가가 없음. 독서실 관장들이 전문가임. 그래서 문화재단에 있는 도서관 일곱 군데는 차라리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독서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음.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고 봄.

독서실을 폐관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은 본인들을 임명 시켜준 사람들의 보은을 받은 만큼 일하고 나감. 나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모습을 보니까 획기적임. 고졸자 이런 분들, 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최종 학력이 고졸자 이런 분을 채용하면서 젊은 세대를 유입하고 있음. 그래서 본 의원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음.

A [이필형 구청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건비 때문에 주저하고 있음.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공단 일원화를 추진해서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의회가 반대 안 한다면 그렇게 하겠음.

Q [정성영 의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취임한 후 변화한 모습을 잘 보고 있음. 과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의회에 와서 많은 지적을 받고 했는데 지적도 없고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 보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했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7개소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인택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작은도서관은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적 성격과 독서실의 성격을 겸하고 있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급여 문제인데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관리 차원에서 보면 일원화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함.

Q [정성영 의원] (정리발언) 이 자리에서 이필형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은 구청장실에 상황판 하나 만드시라는 것임. 그렇게 하시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복지나 시설 계통의 구정질문을 하면 복지에서만 설명하지 마시고 해당 의원님들한테 와서 꼭 설명하시고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조금 전에 신답고가차도 철거 문제 2004년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언급했는데 맨날 답변은 똑같았음. “서울시에도 요구했다.”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요구만 하면 의미가 없음. 하다못해 2006년도 교통량 상황하고 2010년도 상황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체크해서 올렸으면 처리됐다고 생각함. 2004년도, 2006년도, 2008년도는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임. 그거하고 현재 상황하고 조사를 해서 비교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람.

그렇게 일을 해야만 동대문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것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본회의장에서 짓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대문구의회가 되고 동대문구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음.



정서윤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동대문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공공일자리 창출, 구민안전·환경개선 관련

Q [정서윤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우리 구에는 총 3개 업체가 있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와 이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은 경쟁입찰 과정 없이 수의계약을 했음. 특별한 사유를 알고 계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보고 받기로는 2017년 12월 29일에 3개 권역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권역별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해서 유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 1월 4일에 재공고를 해서 2회 유찰이 되었음.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2018년 1월 9일에 수의계약을 2년 계약 한 걸로 알고 있음. 그 이후 2022년에 2회 연장을 해서 3년 계약해서 내년 2025년에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현재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실시했고 서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고용안정과 청소 서비스 질 유지를 위해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마지막 수의계약이 될 텐데 이번 계약을 왜 3년으로 하셨는지? 계속 2년으로 계약을 하시다가 마지막 계약만 3년으로 하신 이유가 궁금함.

A [이필형 구청장] 전문성을 갖고 청소 잘 하라고 한 거라고 생각함.

Q [정서윤 의원] 해당 부서에서 왜 3년 계약을 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처럼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그리고 청소 서비스 질 유지 두 가지임. 첫 번째 사유인 청소 서비스의 질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음. 지금부터 조사한 사항은 본 의원이 구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장안동 주민으로서 조사한 사항임. 우리 구 쓰레기봉투에는 배출시간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로 쓰여져 있음. 우리 구 홈페이지에, 그리고 SNS에 홍보되고 있는 사항임. 쓰레기 수거는 밤 9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이루어지며 쓰레기를 9시까지 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저희 건물 쓰레기통, 2023년 6월 25일 밤 8시 되기 전 시간임. 19시 54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고, 그러면 9시 이후에 수거를 해 가서 다음날 아침에 빈 통이 되어야 함. 6월 26일 아침 10시에도 수거하지 않았음. 사진 하나만 올려놨지만 매일 체크할 때마다 정확히 7시 반 정도에 수거해 가는 것을 제가 확인했음.

수거하시는 분께 한 명의 구민으로서 질문했더니 그분께서 “저녁 7시 30분에 수거를 하니 그 이전에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엄청 혼을 내셨음. 그래서 해당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왜 쓰레기 수거 시간이 고지된 시간과 다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소가 어디시냐? 거기만 저희가 따로 수거를 해드리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음. 이런 답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동의함.

Q [정서윤 의원] 다음 전화통화 기록은 제가 해당 업체 콜센터와 전화를 한 사항임. 네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고 단 한 번도 피드백을 받지 못했음. 네 차례 중에 한 차례는 야간이어서 전화통화가 안 되었음. 정확하게 통화가 연결된 것은 세 번이었고, 세 번 다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했고 다시 회신전화도 없었음. 그러면 야간전화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음.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해당 업체의 사업수행 계획서인데 사업수행 계획서에는 24시간 민원전화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음. 주간전화와 야간전화는 다른데 주간전화만 쓰레기봉투에 기입이 되어 있음. 야간 민원전화는 아무도 할 수 없었음. 본 의원과 같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야간번호를 알지 않는 한 야간 민원전화는 전화를 걸 수가 없음.

또한 내용을 보시면 저녁 9시 이전에 수거한 지역은 필히 새벽 4시 이후에 재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과는 이 관리가, 용역사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A [이필형 구청장] 잘 되고 있다고 보고받았음.

Q [정서윤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어서 내용을 마저 마무리하고 좀 더 말씀드리겠음.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처우의 적절성임. 앞서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노동자의 근로안정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음.

본 의원이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간 수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주간 수거를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음.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도 중요하거니와 우리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밤 7시 30분, 9시까지 퇴근을 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움. 버릴 수 있는 시간을 더 여유를 주시고 다음 날 새벽에 수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린 것임.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2022년 환경부 자료임. 이 자료에 따르면 수면 부족 및 피로 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음. 물론 주간작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출근시간의 혼잡도도 생길 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근로자의 처우에 신경을 써 달라는 지침임.

하지만 우리 구는 노원구에 수거하시는 센터가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하셨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보시면 반입 시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협의체와 처리시설과 협의를 하라는 내용도 있음. 해당 과에서는 현재 노원구에 처리하는 시설과 시간 변경을 협의하신 적이 있는지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람.

이 자료는 현재 경기도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인데 대부분이 이른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음.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미임.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전자 포함 3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용역사에서 제출한 인력 및 장비 배치표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3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작업하는 차량은 한 개 용역사 26대 차량 중에 1대에 불과했음. 대부분이 2인였고 1인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했음. 근로자와 관련된 사항은 두 가지만 언급을 했는데 말씀드린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무척 많음. 청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노동자들의 처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또한 근로환경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용역사가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이필형 구청장] 그렇게 하겠음.

Q [정서윤 의원] 다음은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관련임. 본 의원은 얼마 전 제32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에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용역 관련 회의자료를 요청한 바 있음.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6월 29일 받은 답변임.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받은 그대로 캡처한 것임. 7월 25일로 예정된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고회 끝나는 대로 주겠다고 했음. 9월 12일 받은 답변임.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 자료요구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공개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음. 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고 검토되신 부분인지?

A [한희진 도시건설국장] 알고 있는 상황임.

Q [정서윤 의원] 그러면 해당 국에서는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A [한희진 도시건설국장]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수립의 내용적 범위로 먼저 현황분석과 종합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도출, 세 번째로는 핵심사업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네 번째로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음. 현재 핵심사업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또는 제도

적으로 가능한지 확실히 검증이 안 된 아이디어가 담긴 내용들이 많이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공개가 될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의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러 가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설명을 하러 와주셨는데 자료를 주지 못 한다면 얘기를 했고 관련된 내용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음.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은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이 과연 4억 3,200만원의 값어치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 듣고 싶었던 것임.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만약에 괜찮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자료제출은 불가하지만 설명드리고 다시 자료를 회수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됨.

Q [정서윤 의원] 법제처 법령 해석 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 외 사항들은 거부하실 수 없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길 바라고, 이 내용은 현재 용역사가 제출한 설계내역서임. 대외비가 되는 공개할 수 없는 중간보고서를 왜 100부나 인쇄하시는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미래비전정책자문단과 구민비전자문단이 있는데, 중간보고 단계에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있음. 그때 인쇄하는 내용이고 이 자료는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다시 회수하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용역이라는 것은, 중간보고라는 것은 결과보고로 가기 이전 최종점검 과정인데,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내용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내용이 비슷할 것이며, 만에 하나 해당 국과 과에서 용역사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지난 8개월 동안 방향 설정을 잘못했을 때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것임. 그렇다고 한다면 보통의 중간보고서 인쇄라는 것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다시 잡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보고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구민 분들 모셔서 자문을 받고 있음. 전문가들은 4회 모셨고 구민들은 3회를 할 예정임.

Q [정서윤 의원]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지만 구의원은 이렇게 구정질문까지 해야 볼 수 있는 중간보고서 한번 기대해 보겠음. 본 의원은 비밀유지 서약서까지 쓰겠다고 했는데도 가져오지 않으셨음.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중간보고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음.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지방재정법」상에는 자료제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국회법상에는 있어서 이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법 제128조에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는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등 회의체임. 개별 국

회의원은 법률상 자료제출 요구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돼 있음. 그래서 만약에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는 업무협조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정서윤 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는 서로 법들이 많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저는 현재까지 받은 자료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음. 2022년 제2차 정례회 때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5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설계했었는데 4억 5,000만원으로 감액이 됐었고 최종 계약은 4억 3,200만원이 된 것이 맞는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맞음.

Q [정서윤 의원] 총 용역비는 당초 기획예산과에 설계 때보다 78%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런데 인건비는 132%가 증가했음. 그만큼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커진 것이고 기초자료 조사 경비가 없어졌음. 회의비 8,700에서 3,300만원으로 38% 수준으로 감소했음. MP자문료 5,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18% 감소했음. 다 감소했는데 이례적으로 인건비만 올랐음.

다음은 회의 수준에 대해서임. 당초 예상 계획 수립 때에는 미래행복정책자문단 20회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계약은 6회로 설계 내역이 되어 있고, 시민비전자문단 9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계약 4회로 줄었고, MP자문 횟수 90회에서 30회로 줄었음. 예산은 78% 2/3 이상이 있는데 회의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는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알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기초자료 조사 과정도 진행하지 않고 회의도 횟수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이 연구용역에 담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이 자료만 봐도 상당히 걱정이 됨. 비공개 자료인 연구용역에 담을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임. 9월 5일까지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 횟수를 비교하면 현재 설계내역서 상에는 미래행복정책자문단이 6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회 한 것으로 공정보고회는 적혀 있음.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이건 좀 오류가 있는데 저희가 중간보고 때도 미래행복정책자문단이 참석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1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중간보고회 총 3회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1월 착수보고 때 한 번, 중간보고 때 한 번. 본 의원과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자문단 회의는 좀 다른 거 같음.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는 말 그대로 보고회이고 회의는 아니라고 생각함. 얼마나 심도 깊은 회의를 하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함.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때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충분히 들었는데 중간보고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아서 현재 내용을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충분한 양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공개될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Q [정서윤 의원] 그러면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간보고서는 완벽하지만, 나름 괜찮지만 회의가 충분하지 않아서 회의 내용이 반영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내용은 괜찮지만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러면 본 의원은 나중에 중간보고서와 결과보고서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일맥상통하는지 비교하겠음.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회의 횟수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 거 같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음. 처음에 보신 자료 2022년 2차 정례회 때 제출한 설계 예정 내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우리 담당자가 계약발주 전에 계약 상대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에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인력 경비나 회의 횟수 같은 것을 담당자가 추정해서 작성한 자료이고 협상에 의한 자료는 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게 됨.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자는 인건비를 40% 정도 잡았는데 실제 상대 업체에서는 경비를 없애고 다 인건비에 포함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회의비도 사실 처음에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음. 그래서 이 부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Q [정서윤 의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지금 당초 작년 2차 정례회 때 설계된 예산 내역인 5억 5,000만원이 과다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인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과다하다는 뜻이 아니고 비중에서 담당자가 회의비를 과다하게 잡고 인건비의 비중을 과소하게 잡았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음. 그리고 중간보고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이런 용역들을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서울시 용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음.

Q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은 물론 작년 2차 정례회 때 제출된 예산서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님. 작년 최초 설계내역인 5억 5,000만원 대비 4억 5,000만원이 되었을 때 회의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게 다양한 협의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기초조사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게 우려가 되는데 우려 사항을 지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임.

지금 아직까지 당초 설계내역서 상에, 작년 2022년 자료가 아니라 올해 용역사에서 제출한 설계내역서 상의 횟수로 보았을 때, 아직 횟수가 많이 남았음. 물론 미래행복정책 자문단 회의 두 번 하셨으면 세 번 남은 걸로 하겠음. 시민비전 자문단 회의 두 번 남았음. 곧 한 번 하시는지? MP자문회의는 24번 남았음.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말씀하신 것이 맞음. MP회의는 저희하고 하는 거 외에도 업체하고 직접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음. 그런데 여기는 산정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됨.

Q [정서윤 의원] MP자문회의 할 때 회의록은 쓰시는지? 제가 제출 받은 자료는 이것밖에 없음. 모든 회의록을 요구했고, 받은 건 이것밖에 없음.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회의록 다 작성하고 있고 부서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

Q [정서윤 의원] 지금 이 공정표는 올해 9월 5일 용역사에서 제출한 공정표임. 공정표에 따르면 8월 31일자로 용역이 84%가 완수되었다라고 제출을 하였고, 해당 부서에서 저에게 언급한 바에 따르면 현재는 모든 계획이 거의 끝나가고 그림을 그리는 단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 현재 공정 과정상에서도 그러해야 할 거 같은데 아직 회의 횟수가 많이 남아 있음. 이미 회의가 다 끝나서 모든 회의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용역 마칠 때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아 있음.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논의했던 것을 그림을 그리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Q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이 중간보고서 내용을 보지 못한 단계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답답함. 반드시 확인하겠음. 다음으로 이번 용역사가 제출한 설계내역 중에서 선포식 동영상 제작비가 450만원 잡혀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동영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선포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선포식 동영상 대신에 조감도 또는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을 내려고 함.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음.

Q [정서윤 의원] 청장님께서 그리시는 스마트 도시, 미래 도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인지? 스마트한 도시, 미래 모습의 도시, 동대문구가 발전한 미래 방향성이 그 영상에 반영이 되는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최종 보고 때 보실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올해 예산에 홍보담당관실에 9,500만원의 홍보예산 용역비가 잡혀 있음. 영상제작 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당시 홍보담당관께서는 스마트한 도시, 미래 도시로서의 동대문구를 담겠다, 청량리역 광장 조감도 담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똑같은 영상이 아닌지?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잘 구성하겠음.

Q [정서윤 의원] 관계 부서 간에 협조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음. 본 의원이 작년 2차 정례회 때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임. 그때 분명히 “동대문 미래비전 2050과 내용이 비슷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임.

본 의원은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작년 2차 정례회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한 질의를 해왔고 이 예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최종 계약 때는 4억 3,2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의 값어치를 할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인지

무척 궁금하고 우려되고 관심이 많았음. 왜 그러냐면 우리 구는 지금까지 용역비가 2억이 넘는 용역이 거의 없었음. 처음 작년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이 물꼬를 튼 것임.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최종 4억 5,000만원으로 승인됐음.

올해 예산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임. 연구용역 예산 4억, 5억 기본으로 올라옴. 갑자기 연구용역이 2배가 된 것임. 임금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은 대부분 인건비임. 임금은 상승하지 않았는데 연구용역은 2배가 되었음.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그 값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현재 첫 번째 주자인 동대문 미래비전 2050 연구용역도 지금 이런 상황임. 회의록 이런 것들 본 의원 다 받아서 검토를 해봤고, 자세한 내용은 더 언급하지 않겠지만 국장께서도 검토를 하시면 본 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 번 고민 해봐 주셨으면 좋겠음.

A [한휘진 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음. 타 자치구 용역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5억 3,900만원 정도 나왔고 용역기간이 16개월 정도라서 저희는 평균보다는 작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음.

Q [정서윤 의원] 공공일자리창출 관련 말씀드리겠음. 먼저, 동대문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구청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직간접 공공일자리 8,933명을 창출했다고 되어 있음. 그래서 본 의원이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일자리를 분석해 봤음. 그 중에서 간접 공공일자리, 이를테면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민간 등의 간접 공공일자리를 제외했더니 5,794명이 나왔음.

그러면 이제 직접 공공일자리 5,794명 중에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직종들을 제외해 보겠음.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함. 현재 일자리처럼 단기 아르바이트처럼 각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지만 이걸 나중에 제가 '5분 발언' 별도로 하겠으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됨. 청년들에게 정확한 행정체험을 주셔야 됨. 그렇기 때문에 이 연수 과정은 일자리로 보지 않겠음.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린이 등·하고 교통안전 지도 사업은 평균 1일 1시간 근무를 하는 직종임.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함.

A [최소정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월 최대 30시간 근무하심.

Q [정서윤 의원] 1일 평균했을 때 1시간이면 이걸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서 일단 제외를 했을 때 3,66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음. 이 중에서 정규직은 513명뿐이고 나머지 모두가 비정규직임.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현재 창출된 일자리에 대한 수준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임. 숫자를 깎아내고 싶었던 것은 아님. 언론에 보도된 수치인 8,933명을 비교했을 때는 5%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지?

A [최소정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노인 분들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음.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정규직만 본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음.

Q [정서윤 의원] 다음으로 본 의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신규직종 일자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음. 경비 일자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일자리 다양하게 요청을 드렸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A [최소정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신규 일자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기술학교’라고 주민들 대상으로 집수리, 도배 이런 과정을 기존에 했었음. 그거를 미래산업형 AI 관련 과정으로 하고 또 앞으로는 청년취업 사관학교가 11월에 개관하게 됨. 거기에서 4차 산업 인재를 육성하게 되고 또 유니콘 센터에서 청년 창업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는 부분임.

Q [정서윤 의원] 작년 수치에 따르면 정규직 중에 신규사업은 단 1건이었음. 보육여성과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5명인데 올해는 더욱 나아진 수치와 다양한 직종, 직군을 기대함. 트렌드가 반영된 일자리, 그리고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이를테면 제가 제안드린 직종도 많이 있는데 적극 발굴해 주시고, 일자리 개수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발굴된 일자리의 처우개선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음.

A [최소정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열심히 노력하겠음.

Q [정서윤 의원] 다음은 문지마 폭력사건 대비 우리 구의 대책 방안과 신규정책 관련 질문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어제 9월 15일 밤 10시 16분 배봉산임. 등산길 초입인데 밝은 곳도 있지만 생각보다 영상 상으로 보셨을 때 어두운 곳도 제법 있음. 그리고 사람이 거의 다니고 있지 않아 여자 혼자 올라가기에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음.

배봉산, 그리고 청량리역, 전농동 일대, 또 장안동, 대학가 주변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주민참여 합동 순찰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8월 24일 장안2동 주민참여 합동 순찰이 있었음. 이때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이 함께 참여를 했고, 본 의원이 참여하면서 환경순찰팀장에게 지금 문지마 폭력 관련해서 배봉산과 독방길이 매우 위험하다,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산책로인데 매우 위험하니 청장님 모시고라도 한 번 돌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었음.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청장님께서 바쁘시면 해당 부서 직원들이라도 먼저 배봉산과 독방길을 순찰해서 안전한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선제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제가 배봉산하고 독방길 부분은 많이 다녔는데 의원님이 다니신 시간이 주민들이 거의 없으실 시간임. 저녁 9시까지를 주민들이 배봉산 산책길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때는 주변이 지금보다는 더 환하고 10시가 넘어가면 조금씩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주능선을 제외하고는 많이 불이 꺼지는 상황임.

Q [정서윤 의원] 배봉산 입구 산책로가 저희가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드시 접근을 할 것이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A [이필형 구청장] 제가 밤 11시, 12시에 상당히 많이 가봤는데 거의 마주치지 않음. 그리고 배봉산 같은 경우 개활지이기 소위 음침한 곳이 사실 별로 없음. 여러 군데가 환하고, 그래서 그 시간대는 인적이 아주 극히 드뭄.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그다음에 CCTV가 사각지대 미설치 지역, 그다음에 CCTV는 설치돼 있는데 성능 개선이 필요한 지역 그런 데를 요새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서울시하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음. 그래서 배봉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 보완을 하라 그러면 보완을 하겠음. 그런데 전력 낭비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입구에 몇 시까지는 출입 자제라든지 그런 것을 주민한테 권고하는 것도 검토를, 주민의 의견을 받아 보겠음.

Q [정서윤 의원] 여기는 독방길 벚꽃로 산책길인데 산책길에 원래 경관조명이 있음. 경관조명이 나무를 비춰주면서 주변을 밝게 해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에 따르면 현재 수풀이 우거져 조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음.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우리 구도 안심스카우트나 귀갓길에 대해 안전을 챙기고 있지만 스마트 도시답게 성동구 사례처럼 휴대폰을 CCTV처럼 QR코드 찍으면 휴대폰이 CCTV가 되는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벤치마킹해서 같이 도입을 해주시면 좋겠음.

A [이필형 구청장] 저희들이 스마트 도시를 표방한 게 6개월 됐음. 지금 국토부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우리가 빨리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결국은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돈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임.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음.

Q [정서윤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구의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과 신규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함. 성동구에서는 현재 9월 7일자로 주민이 신청하면 방사능 검사를 바로 해주는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런 부분 우리 구도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식품방사능안전 전담반이 강북에 편성이 돼서 경동시장을 집중해서 보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주민이 원할 때도 와서 해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지금 서울시에서 10월부터 방사능 측정기가 저희들에게 옴. 아마 그때부터는 원하시는 측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음.

Q [정서윤 의원]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2050 동대문구와 관련하여 우리 구 1회용품 사용방지 대책이 궁금함. 본 의원은 이미 기후환경과에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연구용역과 센터 공모에 대해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정책을 알고 있음. 아쉬운 점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지 일회용품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임. 우리 구 차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A [이필형 구청장] 그렇게 하겠음.



김창규 의원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Q1 신이문역 증개축 사업

A 신이문역 증개축과 관련 사업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역사 출입시설의 증축에 시·구유지 무상사용 검토를 요청해 왔음. 그러나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한국철도공사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해당 되지 않아 시·구유지 무상사용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음. 신이문역사 시설개선 사업은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 구와 한국철도공사의 신이문역 증개축과 광장 리모델링 복합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사업 타당성 및 부지사용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음.

Q2 이문2동 복합청사

A 이문2동 복합청사는 이문동 220번지 일대에 구) 흥명공업사 부지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대지면적 430평, 연면적 2018평 규모로 주민센터 청사와 공영주차장 지하 84면을 건립하는 사업임. 사업비는 복합청사 부분 135억원, 공영주차장 부분 271억원으로 총 406억원이며 2019년 11월경 도시관리계획상 주차장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는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3월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등을 거쳐 2021년 9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음.

설계 용역은 당초 2022년 6월까지 완수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에 신이문로 하부 상하수도 구간 매설물을 이설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었고, 매설물로 일부 축소된 주차장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신

이문역 인접 도로를 사업계획에 추가 편입하고 인접된 이문고가도로의 교각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여 2023년 3월과 10월, 12월 3차례에 걸쳐 준공기한이 연장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민 안내 사항은 청사 신축 일정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 사업 현장에 안내하고 있음.

설계용역이 완료된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3억 7,394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 변경과 설계비에 대해서 투자되었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4억 8,324만 3,000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추가로 반영될 공사비와 감리비로 30억 4,388만 7,000원을 2024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임. 내년도에도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금년 11월에 국비 2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202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건물 준공 후에 내부 공간 조성 관계랄지 단계를 거쳐서 2026년 4월에 신청사를 개관 운영할 예정임.

현재 해당 부지는 보상 및 건물 철거 후 주민 편의를 위해 노외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착공과 동시에 주차장 운영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기존 청사에 대하여는 신청사 준공에 맞추어 전 부서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음.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도서관 조성에 대한 방안도 포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기존 청사 활용 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Q3 청량리 종합시장 시설 현대화

A 우리 구는 그간 재래시장 현대화, 지역 명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금년에는 서울시 유수의 전통시장을 제치고 서울시 2기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음. 앞으로 서울시와 협조해서 혁신적인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청량리종합시장을 서울시의 랜드마크 전통시장, 글로벌 관광 명소로 조성토록 하겠음.

또한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 햇빛가리개 설치, 화장실 보수, 증발냉방장치 설치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향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아울러 청량리종합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글로벌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Q4 배봉산 정상 휴게시설

A 배봉산 정상은 서울시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된 배봉산 보루가 위치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야 함. 배봉산 정상의 팔각정 형태의 새로운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및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실시하여 설치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음.

Q5 신이문역 이문 고가도로 하부공간 루프스퀘어

A 본 시설은 신이문역 이문고가도로 하부에는 2층으로 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2017년 7월 서울시에서 고가도로 하부 공간 활용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18년 3월 하부 공간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여 우리 구로 관리가 이양된 공간임.

우리 구에서는 2020년 5월 시설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1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주민들의 의견이 1, 2층 모두 운동시설 사용을 희망하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 소음이 많아 걱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소음이 적은 아트마켓이나 베품시장, 전시 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원함.

그러나 이후에 해당 시설이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이용 주민이 많이 없어서 사실상의 이용이 적은 것이 사실이고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도 사실임.

앞으로 이용시설을 주민 모두 편리하게 열린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단이나 주민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도 상의를 해서 주민 나눔장터나 플리마켓,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본 시설은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연 2회 상·하반기 세척작업을 시행 중으로 도로과 기동반을 활용하여 고압 살수세척기를 사용하여 올 4월과 10월에 두 번 세척작업을 실시하였고 또 수시로 미관 개선작업을 위하여 연간 단가를 활용하여서 세척을 시행하고 있음.

또 조류방지망을 올 7월 21일 예산 3,300만원을 들여서 추가 설치하여 배설물로써 미관 저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이문1·2동 주민소통회 불편사항 건의에 따라서 공간 활용을 위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앞으로 더욱더 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손세영 의원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Q1 우리 구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세계거리춤축제)

A 먼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운영돼왔던 세계거리춤축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께서 아쉬워하게 된 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림.

세계거리춤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를 개최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고 2022년 지난해 9번째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음. 그러나 축제를 개최해 올 때마다 부스 판매 등 예산 집행이나 정산 문제 또 위원회 조직에 대한 문제,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음. 구에서는 금년도 이러한 축제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상반기부터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춤축제위원회 관계자 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 조율을 하였으나 지난 축제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이 잘 이행되지 않아 축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함.

더군다나 9월 15일자로 춤축제위원회 집행부가 변경되고 변경된 집행부에서도 이전에 추진해 왔던 사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금년도에는 축제가 어렵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9월 25일 대표단이 구청장님을 면담 하시면서 내실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금년도 세계거리춤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바 있음.

그러나 춤축제위원회 명의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이 문화관광과 메일로 송부되었으나 문서의 시행일자 등 형식이 맞지 않고 축제를 개최하려는 위원회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전에 여러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절차적 문제점이 다수 있었음. 이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새로 바뀐 위원회 사무국에 전화를 걸었으나 소통이 되지 않았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난 9월에 구청장님

과의 면담 시 금년도 개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에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었음.

세계거리축축제가 지난 9회까지 개최되는 동안에 장안동이라는 지역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고 콘텐츠 운영이나 정산 문제 또 상업적 판매를 위한 야시장 부스 운영, 위원회 조직 정비의 미비사항 등에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돼서 축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축제가 장안동의 상권 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우리 구만의 정체성을 확립한 축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민·관 합동의 축제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이 제시했던 축제에 대한 환류, 또 축제 전문가나 지역 예술인 등의 객관적인 주제와 행사 내용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우리 구에 맞는 축제로 발전시켜서 행사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향후에도 발전된 축제 개발 방법을 통해 기존 축축제와 융합하는 방식과 또 새로운 축제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장안동의 축제가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Q2 우리 구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 (답십리영화제)

A 답십리 영화제는 지난해 2022년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개관하고 11월에 제1회 영화제를 개최하였음. 금년도에 2회째 맞는 행사로 의원님께서 아까 영화제에 여러 가지의 부실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국내 영화제의 경우에 유명 영화인이 참석하거나 또 배우들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고는 함.

그러나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영화제는 국내외 우수한 영화제라기보다는 사실상 영화와 관련된 문화나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페스티벌 성격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됨. 행사명을 영화제라고 붙여 다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사업 성격이었지만 작년에 문화재단의 대표와 미디어아트센터의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실무 직원이 기획하여 출발한 영화제가 금년도에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함.

그러나 이 영화제가 금년도에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어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참여 대상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였음.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이나 환경을 주제로 하는 영화 상영, 또 국제 어린이 창작영화제에 공모됐던 영화 상영, 영화인과의 만남을 통한 관객과의 대화,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 영화 색션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영화 제작 프로그램 크로마키 체험, 영화 더빙 체험 등 교육 프로그램, 영화 음악 콘서트, 답십리 패션쇼, 마임 공연, 마술 공연 등 부대 행사, 이러한 이벤트 행사 등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운영이 됐음. 2일간 총 2,948명이 방문했으며 인원의 측정은 미디어센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이 계수기로 측정한 인원으로 전년도에 3일간 1,677명이 방문한 것에 비해서는 1,271명이 많지만 프로그램이나 영화제 규모 자체가 여러 가지로 미비했던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

폐막식에도 인원이 적어서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조금 미흡했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음.

앞으로 이 영화제에는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가 우리 구에 있고 지역적으로 다른 구에 갖지 않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영화제가 아직은 노하우나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어 폐지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음. 그러나 문화재단이나 문화관광과의 어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가 영화제라는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영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

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영상 문화를 공유하고 영화와 관련된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에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됨. 앞으로 이러한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충실하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를 포함해서 재단 또 미디어아트센터에서 더욱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Q3 우리 구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청량리종합시장 달빛나들이 축제)

A 달빛나들이 축제는 당초에 동대문구 문화마당 사업으로 청량리역 광장과 용두공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음. 그러나 상인회 측의 사업 요구와 또 시장이 특성화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시장 내에 주차장을 막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당초에는 8월 말에 계획을 준비하던 중에 문지마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며 동대문경찰서에서도 청량리종합시장에 이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문화재단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 일정이 다소 늦어진 10월 21일에 개최하게 된 것임.

본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청량리종합시장에 위탁을 하고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시행사 이벤트사와 협조해서 시행된 사업이고 당초에 맥주를 무료로 제공하려고 청량리종합시장에서 계획해서 맥주를 15,000캔을 주문 제작했으나 맥주 무료 제공을 무한정 할 경우에 너무 많은 양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맥주는 1,000개로 제한하고 무료 제공 이후에는 유료 판매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음.

현재 맥주를 유료로 판매한 것이 주최한 시장에서는 무료 맥주를 1,000개를 배부하고 1,000개 정도를 판매하고 나머지 약 13,000개 정도 남아 있어서 영업에 대한 수익보다는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사실상의 손실이라는 의견임. 그래서 여기에 판매에 대한 영업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됨.

이번에 처음 개최한 달빛나들이 축제가 다소 홍보나 여러 가지 작은 문제도 있었다고 보지만 참여 인원이 처음 개최한 행사치고는 6,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됨. 내년도에 행사를 개최할 때는 이러한 작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보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상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음.

Q4 우리 구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세계거리춤축제)(보충질문)

A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축제가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고 하신 말씀이 있으셨는데 춤축제에 그동안에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문화관광과 또 문화재단, 춤축제 위원회와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었음.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과정에서 세세한 사항은 아마도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앎.

그러나 그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춤축제위원회를 대표하는 집행부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9월에 이루어지면서 창구가 역할이 잘 안 됐던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

서울시비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춤축제위원회로 지원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직접 시행을 하면 어떠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사항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반대 의견도 있으셨고 심지어 여러 의원님들 중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리고 또 그동안 춤축제위원회 외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진행되어 오면서 9월경에 바뀌는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춤축제 그동안 여러 가지의 의견을 듣고 금년에는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음.

어찌 됐건 이러한 춤축제가 민과 관의 소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그로 인해 춤축제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함. 앞으로 이러한 축제가 더욱 발전되고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의 어떠한 소통이 더 내실 있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임. 그래서 이러한 축제의 존폐에 대한 사항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의견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다음으로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맞음. 그러나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길었고 아까 이규서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5분 자유발언에서도 보셨듯이 재단 직원들의 이직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재단이 자리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임.

예년에 계획돼 있던 축제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달빛나들이 축제 같은 경우에 맥주가 무료로 제공되게끔 계획됐던 것이 무료가 1만원 이상 안주를 주문했을 경우에 한 캔이 제공된다는가 하는 사항은 축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도 됨. 그러나 그 부분이 이익을 남겨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됨.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음.



최영숙 의원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Q1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

A 먼저 좌표 측량 결과값 변경 문제를 준공인가 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사업 시행자 측에서 국토정보공사(LX)에 의뢰한 택지개발 예정 측량 성과도의 측량 결과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축척이 변경되면서 면적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음.

부분 준공인가 처리를 6월 2일자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물 부분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이 있었고, 이어 5월 15일부터 동대문소방서 등 28개 관련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5월 31일에 동대문소방서에서 최종 협의를 화신되어 내부 검토를 거쳐 2023년 6월 2일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인가 처리하게 되었음.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매입에 대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의 검토 여부와 추진 중인 토지매입이 진행되지 않을 시 문제점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 국·공유지를 편입하는 사업 추진계획 변경안을 우리 구에 제출해서 현재 서울시 및 조달청 등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 사업지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음.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매입 등을 적극 행정지도 하겠으며, 최영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쟁점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음.

Q2 동대문구체육관 등 공공 체육시설 이용

A 우선 배드민턴장 내 동호인과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 배드민턴 프로그램은 고정된 시간에 이용하는 월 등록 회원과 자유롭게 수시로 이용하는 1일 입장권 회원으로 나뉘며, 원활한 배드민턴 코트 이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월 등록 회원 코트와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1일 입장 회원용 코트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일 입장 회원이 월 등록 회원용 코트를 이용할 경우 월 등록 회원과 1일 입장 회원 간에 가끔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는 제한된 공간 내 회원들의 이용이 많은 저녁 시간에 1일 입장 회원이 갑자기 입장하는 경우에 배드민턴 코트 사용에 있어 월 등록 회원과 1일 입장 회원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이유에서 발생하기도 함.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1일 입장 회원들에게 1코트를 배정하던 것을 2면으로 확대 배정하여 1 대 11의 코트 배정 비율을 2 대 10으로 확대 운영하겠음. 또한 공간에서는 적절한 입장 인원 관리와 배드민턴 코트 이용 질서 계도에 노력하겠으며, 서로 분쟁이 있을 때 직접 다투지 말고 우리 직원을 통하여 문제를 중재 해결하도록 적극 안내하겠음.

두 번째, 관내 체육회 소속 단체에게 대관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운영 방식의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체육관의 대관 허가는 접수를 거쳐 담당 직원 상담 후에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대문구체육회 소속 종목 중 동대문구체육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체육경기에 대하여 올해 3월에 종합하여 11개 종목별 대회 일정에 대한 대관 사용 신청이 있었음. 3월에 일찍 대관 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선착순이라는 측면에서 특혜라 보기는 좀 어려움. 올해 11월 현재 대체육관 전용 대관 31건 중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건수는 11건이며 그 외에 일반 대관이 20건으로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11건 중 7건은 구청장기 대회고 4건은 협회장기 대회였음. 주말인 토·일요일을 1년간 대략 합산하면 대관 가능일수가 약 100여일이 되는데 그 중에 특정 단체라 칭하는 동대문구체육회 대관은 11일에 불과하여 특정 단체의 우선권 부여나 전유물로 사용 독점한다고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음. 이와 같이 대체육관 대관은 우선 신청 순서에 따라 정해지고 특정 단체라 해서 우선권을 부여하지는 않음. 그리고 일반 개별적인 구민의 이용권 문제도 평일에 대·소체육관 이용에 대한 신청이 없는 토요일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탁구, 배드민턴 1일 입장권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체육관이 일부 단체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세 번째, 구민 모두에게 이용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정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평일에는 일반 주민의 이용권 확보를 위해서 대관을 허용하지 않고 소체육관에서는 요가, 인라인스케이트, 스포츠 댄스, 실버 워킹, 줌바댄스 등 문화 프로그램과 대체육관에서는 탁구,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주말에만 대체육관에 대하여 체육 경기 등의 전체 대관을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지적하신 이용요금 감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것임. 앞서 답변드렸듯이 대체육관 전체 대관은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대관을 허가하고 있으며, 선착순 방법이 특정한 단체나 이용자들에게 특히나 우선권을 주지 않는 비교적 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됨.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문제의 발생 소지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보완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기회가 보장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서윤 의원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대문문화재단 관련 사항(임직원 처우 개선, 급여체계 및 권한의 적절성, 조직문화, 사업구성의 적절성 등), 영세한 골목상권 지원 요청(골목상권 매니저, 차없는 데이 우선 검토), 수익계약 개선을 위한 요청

Q [정서윤 의원] 청장님, 혹시 잡플래닛(jobplanet)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모름.

Q [정서윤 의원] 잡플래닛(jobplanet)은 최근 MZ세대의 구직자들이 구직 전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사이트임. 생각보다 별점이 야박한 편이어서 3점 정도면 그래도 그럭저럭 일할만한 곳으로 3.5점 넘으면 신의 직장으로 평가를 하는데 25개 자치구 문화재단의 잡플래닛(jobplanet) 평점을 확인해 봤음. 서울 문화재단 3.2점, 강동 문화재단 3.1점, 금천 문화재단 3.4점, 성동 3.2점, 노원, 영등포 관참은 수치였음. 우리 문화재단 어느 정도 나올 거 같으신지?

A [이필형 구청장] 잘 안 나올 거 같음.

Q [정서윤 의원]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되는, 평가 받고 있는 동작 문화재단과 동대문 문화재단 별점 1점임. 다른 평점이 비교적 높은 문화재단의 공통점을 파악해 봤음. 문화예술 종사 분야의 특성상 유연근무제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 비교적 수평적인 사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음. 왜냐하면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서는 수평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필수적인 요건임. 그럼 우리 문화재단은 현재 어떤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음. 본 의원은 11월 15일 동대문 문화재단 6급 이하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음. 문화재단 본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그리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을 찾다니며 직원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음.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드리겠음. 문화예술 종사자라 함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때 그 휴식을 위해서 본인의 주말 휴일 시간을 기꺼이 내어 일을 하는 직업임. 또한 창의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여야 하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이기도 함. 이러한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일하는 관련 기관에서 필요한 복지는 연봉도 중요하지만 유연한 근무 제도와 수평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아웃풋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풋을 넣어줘야 됨. 다시, 지난 11월 15일에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음. 먼저, 본 의원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문화재단 내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본 의원이 체계적인 전수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정량화하고 객관화를 하고 싶었지만 정책지원관이 그것은 의원이 너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진행을 못 했음. 복수의 직원들이 토로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음. 문화예술 특성상 “9 to 6”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음.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차 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셨음. 우리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할 수 있는데, 여기 축제 관련된, 문화사업과 관련된 종사자들은 행사가 임박하면 70시간, 80시간까지도 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 생김. 하지만 법률 때문에 주 52시간까지만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그 이외의 시간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임. 앞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인풋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 문화재단은 도서비 지원, 문화가 있는 날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현실적인 대체휴무 사용 기한이 필요한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가 발생하는데 6주 내에 사용을 해야된다고 되어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4월, 5월, 9월, 10월, 요즘은 11월까지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면 9월 첫째 주에 대체휴무가 발생했지만 10월 둘째 주까지 그 휴무를 써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너무 바빠서 쓰지 못하면 그 대체휴무는 없어지게 되는 것임.

다음으로 현재 법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보장이 되지만 그 외 남성 육아휴직, 그리고 임신부에 대한 단축근무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음. 또한 다리를 다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직종은 다른 직원들과 소통이 필요한 직종이 아니라 행정 서무직인데, 그래서 재택근무를 요청하였고 동료 직원들도 필요하다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재택근무가 허가되지 않아서 매일 3~4만원의 택시비를 들어서 문화재단을 출근해야 되는 직원이 있음. 그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인 대우와 연행, 신규직원의 오제이티(ojt) 교육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음. 본 의원은 견제 기관인 의회의 구의원으로서 문화재단 임직원 분들의 다양한 고충을 파악하고 해결해 드리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음. 우리 청장님께서 동대문 문화재단 6급 이하 직원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해서 실무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주시고 개선에 힘써 주시면 좋겠는데 노력을 해주시겠는지?

A [이필형 구청장] 노력을 하겠는데 저는 조금 의원님과 생각이 다름. 동대문문화재단이 정상화가 된 게 아직 1년이 채 안 됐음. 그리고 아직 많은 복지나 성과를 해주려면 일의 결과가 나와야 그걸 바탕으로 기준이 있어야 해주는 건데,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해주는 건 좋지만 어느 조직이나 관례가 있는 것이고 또 성과에 따라서 많은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함.

Q [정서윤 의원] 본 의원과는 약간 순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 의원은 제대로 된 대우를 해줘야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함.

A [이필형 구청장] 저희가 채용할 때 직급이라든지 보수체계라든지 하는 것은 다 공개해서 공유된 사실임.

Q [정서윤 의원] 구청장님, 저는 잡플래닛(jobplanet)에 올라와 있는 동대문문화재단의 평가를…….

A [이필형 구청장] 아니, 다른 데는 몇 십년 됐지만 우리는 아직 1년이 채 안 된 그런 새내기 조직임.

Q [정서윤 의원] 시간이 부족해서 이 파트는 마무리를 하겠음. 잡플래닛(jobplanet)에 올라와 있는 몇 가지 퇴사한 직원들의 발언을 전달하면서 이 파트는 넘어가겠음. ‘돈은 제대로 주고 일 좀 시켜라.’

다음으로 임직원 급여체계의 적절성인데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청장님께 두 가지 쿼즈 한 번 드리고 청장님 다시 자리로 모시겠음. 청장님, 우리 문화재단 8급 사서직의 2023년 월 기본 급여가 세후 얼마인지 아시는지?

A [이필형 구청장] 자세히 모름.

Q [정서윤 의원] 140만원임. 수당 포함해서 180만원 내외인데 이 40만원도 대부분이 초과근무수당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 재단의 세출 예산안을 보면 급여를 많이 상향을 시켰음. 지금 보시는 표는 2023년 올해 대표이사님부터 8급까지의 기본급여임 여기에 대표이사님 관리수당이 월 40만원 있으시죠? 40만원 더하여 2024년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음. 상당히 많이 올랐죠? 대표이사님은 여기에 월 40만원 있으시고, 신규로 직급수행 경비 20만원이 생겼음.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마 20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지 신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2023년 세출과 2024년 세출을 비교해 보았음. 나중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인상률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현재 5급은 없음. 5급은 2명으로 이번에 출연동의안에 기존 직원들을 승진시키는 것을 계획으로 5급을 잡으셨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러함.

Q [정서윤 의원] 인상률을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3급 25%임. 본 의원은 재단의 임금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함. 왜냐하면 아까 잡플래닛(jobplanet) 말 그대로 돈은 주고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임. 그런데 상승률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이상함. 하후상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 같음. 8급의 경우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님. 이 인상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일단 의원님이 숫자만 보시고 오해가 있으셨던 거 같음. 3급 25%라고 하셨는데 숫자상 그렇지만 저희가 2023년도 예산에 3급이 3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음. 그런데 이 금액이 사실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현재 본부장이 연봉 계약을 해서 받고 있는 금액은 413만 7,480원이 평균 지급액임. 그래서 전년도에 너무 적게 편성된 급여를 실질적으로 일부 반영을 해준 것이고, 계약할 때 본인의 기본적인 경력을 산정해서 연봉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한계 때문에 70%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계약을 했음.

Q [정서윤 의원] 알겠음. 그러면 방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3급 정규직께서 413만원을 현재 수령을 하고 계시는데 이 금액이 기본 연봉인지, 아니면 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세출예산안을 3급을 320만원으로 승인을 했는데 동대문문화재단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무시하고 의회에 보고 없이 그냥 예산을 올려서 사용하신 건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렇지는 않고, 최저 금액에서 경력을 산정해서 줘야 될 금액이 나오는 건데 본부장 같은 경우는 경력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 줬을 때 임금 전체 뭇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이라 30%를 깎고 계약을 했다고 들었음.

Q [정서윤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2024년 본예산 검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음. 6급은 왜 저렇게 낮은 인상률을 책정하셨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게 최저단위 인상을 노무사한테 여러가지 안을 받았고, 그 안을 바탕으로 8급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플러스 3.1% 기본적인 인상을 최저 상한으로 잡았더니 7급이랑 6급이랑 격차가 너무 없기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씩 늘려주는 방식으로 연봉을 책정했음.

Q [정서윤 의원] 답변을 들었지만 이해는 되지 않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심의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음. 재단 출연동의안에 따르면 5급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기존 6급 중에서 2명이 승진을 할 것으로 보임. 현재 6급이 총 4명으로 파악을 했음. 그러면 그 6급 4명 중에서 2명은 5급으로 승진을 하겠고 그 2명은 실질적으로 24.6% 인상률을 적용 받게 됨. 그러면 6급 4명 중에서 2명은 24.6%가 상승되는 것이고 2명은 세후 10만원도 상승이 안 되는 것임. 그 승진하지 못한 직원들의 연봉 차이에 대한 박탈감 생각해 보셨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이 표에서는 굉장히 벌어져 보이는데 저희가 하한선을 정할 때 상후하박으로 전체적인…….

Q [정서윤 의원] 하후상박 아니고요? 상후하박이 맞나요? 왜 상후하박을 하시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래 직급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그 %를 바

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렸는데 그 차이가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개선이 됐음.

Q [정서윤 의원] 2024년 최저임금 206만 740원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급량비 제외하고 산정함. 현재 8급 기준으로 보시면 215만원에서 급식보조비 13만원 제외하면 202만원임. 최저임금 미달임. 알고 계시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거는 몰랐음. 검토를 해보겠음.

Q [정서윤 의원] 이 부분 할 말은 많지만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음. 다음은 임직원 권한의 적절성임.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는 감사담당관의 조사를 받았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간의 갈등을 대다수는 알고 계시리라 생각함.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님. 적법한 권한은 누구에게든 주어져야 한다고, 절차에 맞춰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함. 현재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관련 조사 결과 자료임. 물론 센터장이 잘했다는 것은 아님. 상단을 보시면 센터장에게 직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 등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개선방안을 권고하였음. 현재 센터장에게 직원 관리 평정 권한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내규에는 있지만, 여기 보이시는 규정집에는 있지만 지금까지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겠음.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게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내규를 신설했음. 이 이유로.

Q [정서윤 의원] 10월 20날 신설하신 거 맞는지? 이 부분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람.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알겠음.

Q [정서윤 의원] 그리고 현재 재단 내에서 직원의 징계에 관해서 이슈, 대표님 알고 계시는지? 대표님께서 센터장과 팀장에게 징계를 하셨고, 재심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음.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알고 있음.

Q [정서윤 의원] 센터장과 팀장의 직급을 대표이사님께서 징계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는 내규집에 있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있음.

Q [정서윤 의원] 없음. 규정집에는 팀장 이상의 징계는 이사장인 청장님만 할 수 있음. 대표이사님께서 팀장 이하만 하실 수 있음. 그 징계가 일단은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한다면...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위임 받았음.

Q [정서윤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서는 적절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거짓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있음.

Q [정서윤 의원]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에서 소상하고 꼼꼼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음. 답십리영화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지? 사업이 잘 진행되었든 진행되지 않았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함.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맞음.

Q [정서윤 의원] 그런데 센터와 재단은 서로 책임이 없다라고 미루고 있다고…….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아님.

Q [정서윤 의원] 이 영화제에서 센터장은 섭외 및 기획에 대한 결정 권한은 없었음.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있었음.

Q [정서윤 의원] 그러면 관련된 섭외와 기획에 대해서 센터장의 결정 권한이 있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거짓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있음.

Q [정서윤 의원] 그것도 다시 한번 따져보겠음. 다음 조직문화 조성 현황임. 본 의원은 민간기업에서만 일을 했어서 “밥 당번”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음. “밥 당번” 정말 박봉을 받는 하위직 직원이 하위직 직원의 급량비로 고위직 직원의 밥을 대접하는 정말 나쁜 관례임. 이 단어 듣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얼마 전까지 있었음.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의 밥 당번 표임. 대표이사님? 이것 때문에 노동청도 가셨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원 중에 한 명이 고발을 했음.

Q [정서윤 의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진취적이고 수평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화재단에서만큼은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거는 맞다고 생각함. 밥 당번이란 게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팀장이 팀별로 한번씩 식사를 하도록 조를 짜줬음. 그래서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팀원 전체랑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보다하고 했었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밥값에 대해서는 제가 사비로 각각의 팀에 밥 담당자에게 줬

던 기억이 남. 제 급여에서 팀에 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줬음.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임.

Q [정서윤 의원] 아직까지도 밥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음. 아까 해당 직원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음. 법적 규정으로「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누군가와 강제로 밥을 먹는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됨.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동의함.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따로 밥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낌.

Q [정서윤 의원] 대표이사님과 본부장 체제 이후 공공로게도 퇴사자만 10명임. 누구의 탓을 하자는 건 아님. 연봉 문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2022년, 2021년에도 이직률이 높았어야 하나 아까 5분발언으로 존경하는 이규서 의원님께서 2023년도에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을 증명하셨음. 연봉이 문제가 아님. 수직적인 조직구조와 소통의 부재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퇴사자가 다수 발생을 해서 도서관이 지출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음. 지출을 해야 할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니까 지출이 적시에 안 나가는 것임. 그거 알고 계신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기획팀에 직원이 최근에 두 사람이 퇴사를 했는데 다들 여기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했음.

Q [정서윤 의원] 나은 조건이었으면 이미 진작에 갔을 것임.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조직진단 반드시 해보시기 바람. 퇴사자가 다수 발생을 하면 퇴사자의 업무가 기존 직원에게 급하게 전가가 됨. 그러면 기존 직원도 또 줄줄이 퇴사하게 됨. 이러한 수직적인 조직구조가 동대문구 문화예술에 업무 공백을 가지고 오고 문화예술에 퇴보를 가지고 오는 것임.

다음으로 사업구성 현황과 산출내역 적정성 말씀드리겠음. 선농대제 1억 5,500만원 인상하셨음. 이거 선농대제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시겠다고 본 의원을 찾아와서 누군가가 설명을 했음. 왜냐하면 본 의원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기 때문임. 사유로 코로나로 선농대제를 진행한 직원이 없어서, 선농대제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없어서 선농대제를 해본 업체와 진행을 해야만 선농대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에게 설명을 했고, 본 의원이 그럴 권한은 없지만 수의계약의 사유가 본 의원도 수궁이 된다고 답변도 드렸던 것 같음.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 선농대제 때 40분 동안 서 계셨음. 특정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선농대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40분이 지연되었음. 사실이 맞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Q [정서윤 의원]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런 적이 있었음.

Q [정서윤 의원] 선농대제 다시 재정비 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고증이 되어야 함. 그런데 갑자기 예산을 2배로 늘린다? 판단은 재단이 하는 거겠습니까만 다른 것들도 보겠음. 이상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음. 우리마을 문화제가 사업 자체가 없어졌음. 대표축제 개발로 포럼 사례 운영비로 1,000만원만 남아 있고 우리마을 문화제가 없어졌음. 예산의 부족이라서 추경 때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러함.

Q [정서윤 의원] 그런데 지금 문화사업팀의 예산 삭감이 되었는지, 인상이 되었는지? 예산이 진짜 없어서인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하…….

Q [정서윤 의원] 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문화재단의 할 일임.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편성했음.

Q [정서윤 의원] 그 생각을 누가 하셨고, 누구와 상의를 하셨고 어느 주민들과 공청회와 토론회를 하셨는지? 그 판단을 왜 자의적으로 몇 명에서 결정을 하시는지? 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본 의원 수궁하겠음. 그 과정 밟으셨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특정 예산에 대해서 토론회를 별도로 한 건 아니고,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3차례 회의를 진행해서 앞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론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임.

Q [정서윤 의원]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예산심의 때 다루도록 하겠음. 이 표를 봐도 물론 지금 너무 박한 인건비를 인상하는데 4억 5,600만원이 인상되었지만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사업비와 운영경비는 2억 6,000만원이 동대문문화재단은 인상이 되어 있는 상황임. 물론, 우리마을 문화제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부터 문화재단 내부에서 우리마을 문화제 사업 예산을 삭감함에 있어서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갔더라는 얘기를 들었음. “구의원들은 우리마을 문화제 절대 못 없앤다.” “주민들의 표를 먹고 사는 개네들이 알아서 마을축제 예산을 만들어 줄 것이다.” “마을축제 예산 우선 삭감해라.” 한 명한테 들은 얘기가 아님. 구의원들 개네들 폄하하셔도 상관 없음. 본 의원이 가장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나면 왜 주민을 볼모로, 예산 편성과 논의 과정에서 주민을 볼모로 삼는지? 답변 안 들겠음.

다음으로 본 의원은 323회 5분발언에서 세계거리축축제에 관련된 제언을 했음. 앞서서도 다양하게 축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대문문화재단과 축축제 위원회가 협의가 안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축축제에서는 축제의 규모화를 위해서 부스 유상 판매가 필요하고 수익금 관리는 투명하게 재단에 일임을 하겠다고 했음. 재단은 수익사업 신고를 하지 않아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다라고 당시에 말씀을 하셨음. 얼마 전에 이사회 하셨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했음.

Q [정서윤 의원] 이사회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논의하셨는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수익사업을 지금은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Q [정서윤 의원] 본 의원이 재단 직원에게 들은 바로는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아닌지?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그거는 아마 잘못 설명을 드린 거 같음.

Q [정서윤 의원]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바람.

다음으로 문화재단 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관리자 집단이 재단 직원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음. 본 의원은 11월 15일 6급 이하 직원들과 토론회를 하기 전에 원래 계획했던 날짜는 11월 2일이었음. 본 의원이 사정이 생겨서 10월 30일에 일정 변경을 안내했음. 공문을 보내면 너무 늦을까봐 유선으로 급하게 빨리 말씀드렸음. 왜냐하면 직원 분들의 업무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빨리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임. 그런데 11월 1일 간담회 전날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시냐고 직원으로부터 문의가 왔음. 이는 최초 간담회가 정해졌던 11월 2일 일정 하루 전날까지 일정이 변경된 사항이 직원들에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임. 그래서 본 의원은 재단 내 관리자급에게 질문했음. 대표이사님은 아님. “최초 간담회 예정일이 하루 전날인데 직원들에게 일정 변경에 대한 고지를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은 “어느 직원에게 연락을 받았습니까?” “의회에서 일정 변경에 대한 공문을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에게 내일 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내일이라는 것은 당초에 토론회를 하기로 한 당일을 말하는 것임. 당일 고지를 하려고 했다는 것임. 당초 예정일 3일 전 일정 변경을 말씀드렸고 공문은 결재가 늦어졌음. 당일에 직원들에게 일정 취소를 고지하면 업무계획에 차질을 주게 될 것임. 받은 답변은 “당일에 직원들에게 일정 취소를 고지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말했음. “직원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당일에 통보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항의를 하자 받은 답변은 “예,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만 하시죠.” 라는 답변을 받았음. 이 사례만 봤을 때에도 동대문문화재단의 관리자급들이 직원들을 얼마나 수평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청장님도 앉아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음. 동대문문화재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람.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체계의 주원인이 무엇인지, 의사결정 과정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지, 조직 내 폭언, 갑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재단 직원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반드시 파악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음. 재단 직원의 말임. “우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문화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개장 이후에 구의원들은 센터에 사람이 많이 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 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괜찮냐라는 질문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음. 동대문 문화재단 직원들이 관찰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A [김경욱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알겠음.

Q [정서윤 의원] 우리 전통시장별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원 금액임. 경동시장 60억, 청량리 종합시장 35억, 청과물시장 26억, 도매시장 16억, 농수산물시장 15억, 경동광성상가 14억, 동서시장 14억, 청량리전통시장 6억 5,000, 쪽쪽 내려가면 전곡시장 200만원, 경동시장과 전곡시장의 지원 현황은 3,000배가 차이 남. 그나마 전곡시장은 200만원이라도 받음. 이 금액도 받지 못하는 영세한 골목상권 무척 많음. 공교롭게도 상위에 해당하는 시장들이 청량리 일대에 다 있음. 물론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청량리를 중심으로 한 종합개발 찬성함. 하지만 전통시장과 상권은 약간 다르니 섬세하게 들여다 봐 주셔야 함. 잘 되는 시장은 자체 상인회가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아마 가져올 수 있을 것임. 하지만 시장에 상인회가 없고 다양한 서류작업을 도와줄 수 없는 시장들은 전곡시장처럼 200만원도 받지 못함. 빨갛게 처져 있는 시장은 지금 현재 다양한 시비나 국비를 통해서 시장 내 매니저가 있거나 경험을 했던 시장임. 본 의원이 2022년 7월 등원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원 연구모임에서 아마 여러 차례 얘기했던 사항임.

A [최소정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맞음.

Q [정서윤 의원] 우리 구는 골목상권 매니저가 필요함. 잘 되는 시장 외에도 어려운 골목상권을 위해서 동 단위로, 몇 개 동끼리 합쳐서라도 골목상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사업을 매칭해 줄 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함. 경기도에서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진행해 상인들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양한 지원사업 신청과 서류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전했음. 제가 지금 얘기하면 거의 열 손가락 꼽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상권 매니저 도입해 주시겠는지?

A [최소정 재정경제국장 직무대리]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매니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권역별로라도 매니저를 배치해서 어려운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계획임.

Q [정서윤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함. 다음으로 차 없는 데이 운영 현황임. 이 부분은 국장님 나오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람. 차 없는 데이 올해 경희대 먹자골목과 한방진흥센터에서 진행했음.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권이 다소 부흥이 되는 효과들을 노릴 수 있는데, 이 상권들이 선정될 때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 별도로 듣고 싶음. 다음번에 2024년도에도 차 없는 데이 2회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고 해당 과로부터 전달 받았음. 차 없는 데이 상권 선정하실 때 열악한 골목상권들 우선적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길 적극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 개선 지침 발표 이후 1년 현재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음. 아시아경제 보도임. 2023년 1월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고, 수의계약 발주계획 공개를 할 때 기간을 영업일 기준 3일에서 영업일 기준 5일로 확대를 하기로 했음. 본 의원은 수의계약 발주 게시물 1,167건을 전수조사했음. 범위는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23일까지 공고된 게시물, 게시물 번호 969번부터 게시물 번호 2136번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수의계약 발주 게시판 전수조사했음. 물론, 많은 과들께서 이전보다 많이 지침을 준수해 주시고 사업들을

수의계약 게시판에 다 고시를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았음. 다만, 게시 기한 미준수가 영업일 기준 5일로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상위 TOP3 과를, 가장 준수가 안 돼 있는 TOP3 과를 공개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의, 좀 더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과 3개 공개하겠음. 공원녹지과 44건, 문화관광과 13건, 경제진흥과 13건임. 그 외 기후환경과와 지역보건과는 건수는 적지만 올리는 사업 대다수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음. 물론 이 내용들이 현재 과들이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님. 한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한 수의계약 게시판에 발주계획이 담긴 파일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사례는 1167건 중 10건 미만이었음. 1%가 안 되는 수준임. 그 외에도 비정상적인 발주계획들이 눈에 보였음. 이를테면 행사날짜가 ○○월 25일인데 견적서 접수 마감일이 ○○월 27일까지였음. 행사가 끝난 뒤까지 견적서 접수마감일을 받고 있었음. 이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으신지, 청장님? 다음으로 발주계획 파일을 첨부해 주신 과가 있었는데 발주계획 파일을 확인해 보니 그 파일 안에 계약 예정인 업체가 기입이 되어 있었음. 다음으로 제가 직접 통화 한 번 해봤음. 이미 계약하기로 한 업체가 있습니다란 답변도 많이 들었음. 구의원 신분을 속이고 한번 여쭙봤음.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해지는 수의계약 개선 지침을 같이 논의를 하고 싶은데, 2022년도보다 심화된 제안 드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발주교육을 전면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앞서 공원녹지과가 가장 많은 건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한 건수가 많은데 보니까 다 영업일 기준 4일로 적용을 하셨음. 그래서 조금 정확한 규정이 고지가 안 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었고, 두 번째로는 발주계획이 담긴 파일 첨부를 의무화해서 보시는 사업장 대표자들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고지하는지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앞서 소개해 드린 정상적인 수의계약 고시 건에 대해서 감사실에 감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함. 다음으로 수의계약에 횡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편법을 씀. A업체가 B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서 계약을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증을 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사 담당자가 계약회사의 실제 직원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길 요청함. 물론 이 사안들이 너무 획기적인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라도 지켜주실 노력을 한 번 해주실 수 있으신지?

A [이필형 구청장] 그렇게 하겠음.

5분 자유 발언





서정인 의원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 의원은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경동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2월 체감경기지수는 41.4로 1월보다 18.6포인트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체감경기의 악화 이유로는 소비의 감소를 일순위로 꼽았으며, 유동인구와 고객 감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즘 핫플레이스 전통시장으로 충남 예산군에 예산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을 되살리는 프로젝트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상권 부활을 넘어 지역의 대표명소로 거듭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옛날 경동극장 자리에 입점한 스타벅스가 독특한 공간으로 화제가 되어 많은 젊은 MZ세대들이 찾아오고 있으나 그에 반해 경동시장 청년물은 구조와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의 반복이고 경영현대화 역시 주로 일회적인 사업들의 반복입니다.

경동시장만 놓고 보면 그 내용은 더욱 단순해집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들 또한 시장의 경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현대화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다른 지역도 다 아는 사업만 반복한다면 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탑재한 네트워크 마케팅 융합으로 새로운 시대,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만들어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자신들만의 색깔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가능한 핫플레이스를 만들기에 지역과 상생하도록 협력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동대문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경동시장은 이제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 문화의 장이자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전통시장은 구민의 삶의 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 상생을 기반으로 경동시장 상인연합회와 청량리 일대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응답하라 1960, 정릉시장 축제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상인회와 민관 협력하여 축제를 개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경동시장만의 역사, 사회, 문화적 지역특성을 배경으로 축제 브랜드 개발과 선제적 시장활성화 정책을 고안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해란 의원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린이공원의 안전 실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5세에서 14세의 우울증 환자는 10,000여명에 이르며, 2021년 대한민국의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2개국 중 최하위인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전반에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놀이운동가 ‘편해문’ 교수는 놀이를 할 때 어린이는 비로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며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여러 지자체와 공동 기획하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는 ‘편해문’ 교수가 타 지역과 기획한 ‘영동발동 놀이터’와 ‘신기한 놀이터’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영동발동 놀이터’에는 큰 모래장과 흙을 밟고 오르고 내리는 언덕이 있고 동굴이 있는 숲속 같은 놀이터입니다.

서대문의 ‘신기한 놀이터’는 큰 모래놀이터가 3곳이 있고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때굴때굴 놀이터입니다.

구상 단계부터 어린이가 주가 되어 직접 참여해서 조성한 공간으로 어린이와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내 어린이 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다고 생

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관내 어린이공원 29개소를 직접 점검한 결과 시설의 노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 상태였습니다.

용두희망 어린이공원입니다. 철제 손잡이 끝에는 공사장 안전 테이프가 둘러져 있고, 바닥 접합 부분은 보기에 낡고 손상되어 있습니다.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입니다. 목적도 용도도 알 수 없는 놀이터 내 도로화분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관을 해치고 어린이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동산 어린이공원은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 안내가 무색하게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널려있고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리내 어린이공원은 놀이터 개수대에 파란 호스가 길게 늘어진 채 방치되어 어린이 안전에 위협은 물론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곳도 있고, 놀이터 개수대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홍릉공원 모래놀이터를 갔을 때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집행부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거나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까? 2023년 2월 21일 자 뉴스보도에 의하면 구청장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추억만 간직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의 점검인데 과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점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시설 관리로 인해 어린이들의 행복은커녕 어린이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이처럼 비위생적이며 낙후된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겠습니까?

관내 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일회성 점검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동대문구, 마음껏 뛰어놀며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동대문구,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말로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어린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놀이터의 주인은 놀이기구가 아닌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편해문 놀이운동가의 발언을 전해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 의원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매일 다르게 느껴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집행부 공무원은 동대문 구민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집행부의 노력과 수고를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31일 구청 강당에서는 꽃의 도시 선포식이 거창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이후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꽃의 도시 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장평교 아래 중랑천 둔치에 장미공원과 튜립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장미공원과 튜립정원 본 의원도 다녀왔습니다. 꽃은 언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꽃과 튜립정원은 무슨 목적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구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의 홍보 공약을 위한 일회성 촬영 장소입니까?

튜립정원은 정원이라기보다 밭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나마 조성된 튜립 꽃들은 과연 얼마나 피고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길게 보아 한 달 정도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일회성 튜립정원 조성을 위해 구민의 혈세가 4,100만원이나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동대문 구민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는 튜립 꽃이 지고 난 이후이고 트랙터가 꽃밭을 갈아엎고 있었습니다. 백일홍 파종을 위한 작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튜립은 다년생 구근 화초로 잘 관리하면 내년에도 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엎고 백일홍 꽃을 심는다면 백일홍이 지고 난 이후에 또 어떤 꽃을

심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심는 데도, 갈아엎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어 있는 꽃을 보기 위해 한 두 달 단위로 꽃 모종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6위 정도인 동대문구가 소비성 예산에 과연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대문구를 꽃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행정은 구청장의 공약도 중요하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모든 예산과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꽃의 도시와 관련된 예산과 정책은 구민을 위한다기보다 주먹구구식 공약 이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꽃의 도시 조성사업비는 14억 2,808만 7,000원입니다. 또한 업무계획서를 보면 꽃의 도시 기본계획 용역비로 5,5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2년 11월 15일 기본계획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용역 결과는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가요? 꽃의 도시를 조성하는 기본 구상은 무엇이고 사업별, 연차별 시행 계획과 예산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한 내용을 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라며 집행부에서 체계적 계획 없이 사시사철 꽃만 사다 심으면 되는 것입니까?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수립된 정책이 차기 후임자에게도 계승되어 모든 국민과 구민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회성, 단발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는 더 이상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모든 지역이 1년 내내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계절별 꽃을 심어 어느 달엔 어느 동에 꽃이 만발하고 그다음 시기에는 어느 동에 꽃이 만발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그 지역만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계획적 꽃의 도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부는 생색내기용 단발성 정책보다는 구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과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 의원은 오늘 동대문구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하여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대문구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의 경우 등록된 차량 대수가 각각 약 7,700여대, 5,500여대, 9,600여대에 달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1년 사이에 약 1,400여대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농2동의 경우 등록차량이 5,500여대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단 77면입니다. 심지어 노외주차장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에서 발생하는 큰 민원 중 하나가 바로 주차난입니다.

현재 전농1·2동과 답십리1동의 골목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은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중으로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골목에 양방향으로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주차마저 어려울 경우에는 가로변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기금을 사용해서라도 새로운 주차 부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으로 전동초등학교에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하여 주차 면수를 확보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학교 운동장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복층구조화로 설계되기 때문에 많은 주차면수를 제공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그 예를 찾아보아도 강북구 번동의 서울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85면, 중랑구 면목동의 서울중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40면, 관악구 봉천동의 서울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148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내에서도 청량초등학교에 회기동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연 이용 건수가 54,000건에 달할 만큼 주민들이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재로서 지역 주민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차환경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주차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전동초등학교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주차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전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태민 의원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 의원은 지난 제31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동대문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의 부실 시공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50억원의 공사비용이 설계변경으로 30억원이 추가되었음에도 수영장 공조기 문제와 수영장 천정 1미터를 낮춘 부실 시공, 급탕시설 용량 부족, 헬스장 벽면 누수, 곰팡이로 인한 악취, 심지어 습기와 누수로 인한 화재 문제까지 지적하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4월 24일경 그동안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향후 20억여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임에도 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향후 체육관 휴관 문제로 인한 주민불편 대책 등 정작 속 시원한 내용은 모두 빠져있는 두루뭉술한 자료로 구령이가 담 넘어가듯 하는 감사 행태를 보였습니다.

비록 관계자는 퇴직하였으나 아직 당시 관계자들이 현직에 남아 있어 눈치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이럴 거면 뭐 하러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란 지난 잘못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상과 벌을 명확히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추상같은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름에 좋은 건 모두 가져다 붙였으나 막상 지금 하는 일은 그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청이 제출한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조성공사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보면 당초 17억

9,000여만원에서 5억 5,700여만원이 추가되어 23억 4,800여만원이 투입됐으나 방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나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모두 설계변경을 거쳐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음에도 주민들의 원성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건축업계에선 공공기관의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무리한 적폐가 진행된다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 당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은 일체 배제되었고 당시 주무과장과 윗분의 논의만 있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이들 2건 모두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공사였으나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형편으로 리모델링 적정성 등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독립된 외부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향후 동대문구에서는 부실 시공과 리모델링의 잘못으로 인한 혈세 낭비는 용서되지도, 세월이 흘러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선례를 남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부기관의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4월 봄꽃축제에 맞춰 조성된 장평교 쪽 산책로는 좁아서 화단을 조성하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산책로의 펜스와 옹벽에 벽화를 조성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연우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 의원은 청소년 독서실의 존립과 관내 공공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6.7%”. 현재 운영 중인 5곳 청소년 독서실의 2023년 상반기 이용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률 저조를 이유로 청소년 독서실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재 집행부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2023년 하루 평균 이용자 수만 해도 100명이 넘고 한 달 이용자 수가 3,500명에 달하는 시설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4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어떠한 논의도 없이 6월 30일에 용두 청소년독서실이 폐관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청소년독서실 폐관을 반대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지키겠습니다.

5곳 청소년 독서실의 최근 5년 이용률을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평균 68%로 다시금 이용률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을 없애지 못해 안달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라서 집행부 마음대로 존폐를 결정하는 겁니까?

본 의원이 관내 청소년독서실 모두를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평일 낮에도 한 도서관마다 약 20~30명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검토한 독서실별 최적의 대체시설인 도서관들도 직접 도보로 가보니 평균 15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독서실과 도서관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학습 공간의 선택

권까지 박탈당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겠습니다.

답십리1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어도 독서실 이용률이 80%로 높습니다. 이는 독서실과 도서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학습 공간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만약 폐관을 꼭 해야 한다면 50%의 이용률을 보이는 독서실을 50%의 이용자들을 위한 대체 학습공간으로 도서관에 독서실을 마련한 후 폐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열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공간인 청소년 독서실을 부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이문 청소년독서실의 위탁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 의원들과 논의해서 존폐를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집행부의 독선을 지켜만 보진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는 국가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국가와 도서관의 숙원 사업입니다.

현재 동대문구 공공도서관은 27곳이 있습니다. 주체 관리는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문화재단 3곳으로 다원화 체제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기능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심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서관 정책의 일관된 수립 및 집행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인력·예산·정책이 파편화되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거점의 역할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금천구와 양산시 등은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를 이뤄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관리 주체 3곳은 각각의 방침을 가지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 컨트롤타워인 동대문구청이 나서서 총체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일관된 정책하에 동대문구 내 전체 공공도서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광진구, 성북구, 중구 등 7개의 지자체는 다원화 체계를 일원화 체계로 바꾸어서 운영상 난맥을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 일원화에 대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공간인 청소년독서실의 존립과 행정 효율화 및 문화도시로의 부상을 이뤄낼 수 있는 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에 대한 고려를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영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필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을 보십니까?

하루에 수백 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밥퍼 문제, 밥퍼와 함께 굴다리 환경개선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 이것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 수산시장에 불법적치물 처리 문제, 고등학교 유치 문제, 분당선 증차 문제, 그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 처리 문제,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청량리역 공원과 인도에서 음주하고 방뇨하고 노숙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의회에서 미리 파악하고 방치 안 했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량리역 가설육교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도로과에서 해결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을 만나서 앞으로는 청량리역 가설육교에 대한 민원을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 민원 안 들어옵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민원만 만날 넣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먼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해결하고

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청량리역 주변에 노상에서 술 마시고 노숙하는 문제입니다. 청량리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숙하는 분 한 분 있던 분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쳐다보고 그냥 갑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합니다. 주민은 어디에다 민원을 내야 되고 어디에다 처리해 달라고 소원을 내야 합니까?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원, 노상, 인도에서 음주가무 방지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동대문구청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무단으로 숙식하는 노숙인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안전시설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경찰이 왔다 그냥 갑니다. 앞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동대문구에서 행복의 꿈을 여는 동대문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퍼 주변에 서울시에서 35억 예산이 왔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지 대책을, 설계를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부족한 예산 본예산에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확실한 설계와 대책을 보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세종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늘 동대문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앞서 지난 1년 동대문구 의원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의 다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2년 7월부터 1년간 동대문구의회 의원으로 함께 하며 스스로 부족한 것이 많았으나 배운 것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함으로 이끌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 의도치 않게 동료의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부족했던 모습들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함께 더 나은 동대문구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야시장 운영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과 관련 기준 마련 등 자치법규 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6일 회기동 상인회와 집행부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회기동 차 없는 데이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상인회와 참여한 주민분들 모두 만족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 주민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며 이처럼 동대문구 내 거리와 공간, 전통을 융합시킨 다양한 축제들이야말로 동대문구의 역동성을 가져다 줄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경동시장을 비롯한 제기, 청량리동 일대 전통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입니다.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동대문구의 발전을 이끌 문화 잠재력 또한 매우 높은 지역이며 회기시장, 전곡시장, 답십리시장 등 동대문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시장들은 저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시장 고유의 특성을 활용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채롭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전통시장은 이른바 노후시설의 대명사에서 서울 동북권의 명소로 탈바꿈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전주, 목포, 충남 예산, 제주 등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의 전통시장에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와 행정 및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시장 운영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통시장이 지역 명소로 자리잡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이전 집행부 업무계획 보고 당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 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경제진흥과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관내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은 푸드트럭과 이동식 매대 등을 활용한 야시장 운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타벅스 경동1960의 사례처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가 야시장 운영을 추진 중인 전통시장 상인회 지원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경제진흥과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야시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동판매 형태의 야시장 시설 기준을 수립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경제진흥과를 비롯해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여러 부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관련 규칙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관련한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문화, 경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이야말로 진정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12일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전농동에 세계적인 규모의 서울대표도서관을 유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울대표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의 약 3배에 이르는 세계적인 규모로 세워지며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여 2020년부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에 들어가고 이후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서울대표도서관이라는 이름은 서울시립 도서관으로 변경되었고 2025년 목표였던 개관 시기는 2029년 개관 예정으로 한참이나 미뤄졌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부지에 도서관 착공 전까지 무려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초화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시립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에 대한 주민 찬반 설문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반대율이 44%나 되고 기타의견까지 합하면 찬성이 아닌 무려 49%나 반대의견입니다.

또한 본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총 1,664명이 참여하였는데 참여자의 거주지를 보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응답한 참여자는 594명 중 66명은 강서구, 강동구, 성북구, 강남 등에 거주한다는 답이었습니다. 네이버 QR을 통해 응답한 참여자 1,070명 중 190명은 안산시, 의정부시, 광주시 등에 거주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와 관계없는 타지 주민들의 설문조사 참여율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설문조사 문항 자체도 초화원 조성 유무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초화원 조성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관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에 해당 설문조사는 초화원 건립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가 아닌 초화원 조성을 미리 확정된 뒤 구청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행된 설문조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초화원이 조성될 경우에는 주민분들은 해당 부지가 영원히 꽃밭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고 도서관 건립이 왜 이렇게 미루어지는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답변 중에서도 “초화원으로 인해 도서관이 지연된다면 반대한다”, “도서관 설립 지연에 대한 해명이 우선이다”, “고작 1년 6개월 이용을 위해 꽃밭을 조성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와 도서관 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걱정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초화원에 대한 설문조사만 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애초에 주민들에게 도서관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를 교환하는 대토 진행 과정에서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교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하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으로 토지를 교환하자고 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감정평가 기준으로 환산해보니 구유지가 시유지보다 47억 1,800만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이 나왔고, 이에 서울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공시지가 기준인 2억 4,0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동대문구 전농동에 지어지는 예정된 서울대표도서관의 건립은 어느 과정 하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와의 대토 과정은 물론 오는 2025년이었던 개관 목표 시기가 착공시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서울대표도서관 도서관의 명칭도 서울시립도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도서관이 들어설 전농동 부지에 지금도 서울대표도서관 건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서울대표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표도서관이었던 도서관의 명칭이 서울시립도서관으로 격하되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매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2025년 목표였던 준공 일정이 무려 2029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도서관 건립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라는 안내가 붙어있습니다. 이 일정이 정말 예정대로 진행되는 일정이 맞습니까? 예정대로 한다면 2025년 착공이 아닌 2025년 준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세계적인 규모와 시설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기대가 매우 큰 도서관입니다. 부디 서울대표도서관이 예정과 같이 조속히 착공되어 완공되기를 바라며, 세계적인 시설에 걸맞게 그 이름 또한 지켜지도록 노력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두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오늘 본 의원은 이문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이문동 구간 중랑천 제방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문동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가는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택가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주차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으며,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화재 진압 및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로 직결됩니다. 주차장 건립이 당장 필요하지만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이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점을 바꾸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문동 지역의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문동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7년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시비 154억원과 구비 66억원의 공사비를 확보 하였으나 학교 측과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문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외국어대 운동장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면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운동장 지면을 인조잔디로 조성하면 쾌적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관내 청량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은 회기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최근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모범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외국어대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문동 구간 종량천 제방길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의 제방길은 5.6km에 이르며 그중 장안동부터 휘경동 구간까지 4.4km는 장안 벚꽃안길로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입니다. 이곳은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종량천 건너 종량구도 각양각색의 장미꽃을 조성하여 매년 성공적으로 장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이문동 구간 제방길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통일성도, 특색도 없는 나무로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문동 구간 제방길도 지역을 대표할만한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장안동 쪽은 꽃이 피는 봄에 벚꽃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문동 구간은 장안동 쪽의 벚꽃나무와는 다른 계절의 꽃이 피는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계절적인 중복을 피할 수 있어 이문동 지역 또한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성공적인 동대문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녹지 환경을 균형 있게 조성하여 동대문구에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구청장은 지역 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조례에 걸맞게 이문동 구간 제방길에 타 지역과 구별되는 특색 있는 나무를 식재하여 이문동과 장안동이 함께 동대문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영 의원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 의원은 먼저 지난 18일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을 착각하셔서 제대로 진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착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의사담당과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19명의 구 의원은 지역주민께, 동대문구 구민께 오로지 동대문구 발전과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의원 19명이 동의가 안 된 결의안을 동대문구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서명을 하고 9명이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동대문구의회 결의문이라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정 당의 결의문에 대해서 지난 18일에 일부 특정 당에서 입장문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발표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과 국민의힘 동대문구 입장은 그동안 뉴스나 신문지 상에서 나온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과거 저희가 소고기 수입 문제로 광우병 파동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구멍이 나고 뼈에 구멍이 난다는 가

짜뉴스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없어졌습니다. 지금 첨단과학 시대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훗날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문은 서류로 제출하겠으니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대문구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의원이 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서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4대, 5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을 조금 비우고, 욕심을 조금 비우고 버리니 마음이 편합니다. 잘 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고 오로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당과 당리당락, 우리 구청장, 우리 당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동대문구청의 잘못된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을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동대문 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동대문 구민께, 지역 주민께 약속한 대로 지역 주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욕심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아부나 딸랑거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오로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동대문 구의원을 할 것입니다. 같이 하는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한 번 더 하려면 오로지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규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랑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휘경1·2동, 회기동의 박남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태와 동대문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개청 이래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심의 의결해 왔습니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기관의 각자 역할에 대한 상호 존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위원회에서는「회의 규칙」제74조제4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며 한 번 더 철저한 본심사 과정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심의 확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회는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최종 의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회 추경안 심의 때도 예결위원회 의결 전에 집행부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무색하게도 집행부는 1차 추경 심사에서 기 검토된 사업들을 2차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여 제출했고 심지어 그 사업비가 2차 추경 예산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억원에 달해 그야말로 의결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추경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2023년 6월 22일 확대간부 회의 시 구청장 지시사항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됨”,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스마트 도시 관련 사업 예산은 상당 부분 삭감되었지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해 주기 바람”, “또한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증액하여 다시 올려주기 바람”이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각 담당 공무원이 그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동 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지침을 알고 계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구청장이나 간부들에게 보고하여 이미 의사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수정이나 보완 없이 수개월 안에 당초 안을 그대로 상신합니까? 또한 반려했거나 불허한 사업인데 한두 달 만에 똑같은 내용의 결재문서가 올라온다면 여기 계신 국장·과장님께서는 흔쾌히 결재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과정은 다르지 않은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들을 집행부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동일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집행부가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둘째 환경변화나 기준 변경, 시기 경과 등의 불가피한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어떠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헌법에서 지향하는 입법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가 동대문구의회에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그리고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이대로 지켜만 보실 겁니까? 내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추경안 심의를 위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제323회 임시회 심의가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서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안2동의 반복적인 주차단속 민원 신고에 관한 동대문구의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구역은 장안2동 한천로36길부터 장한로 31길까지의 골목입니다. 이 골목은 주거밀집지역 내부에 있어서 양쪽으로 각종 영세업체가 늘어 있고 그 가운데 좁은 도로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합니다.

이 골목의 전체 폭이 약 8m에서 9m 정도로 워낙 좁아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따로 없고 평평한 도로면 위에 페인트로만 보도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구역과 통행차도 부분을 제외하면 주차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보도구역 위에 걸쳐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과 신고가 굉장히 자주 들어오고 있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을 가지고 온 방문객은 물론 해당 골목 상인들 또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차 불편으로 인한 방문객 감소가 계속 이어진다면 상권 자체가 무너질 것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동대문구에서도 항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점입니다.

본 의원은 즉각적 대응책과 근본적 해결을 모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즉각적 대응책으로 도로 양쪽에 표시된 보도구역을 삭제하고 이면도로를 원상복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행권 역시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구민 안전을 위하여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구역의 새로 생긴 보도구역은 그 길이가 160m 이내로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가게에 가려다가도 주차공간 여부를 이유로 아예 다른 가게를 선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인 처지에서는 자투리 주차공간 하나하나가 아쉽습니다. 모든 주민이 존경받아야 함은 맞으나 그중에서도 한정적인 환경 안에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주민이 있다면 그들을 조금만 더 배려하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디, 상인들 역시 주민의 일 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인근 주차공간의 적극적 확보 및 발굴입니다.

동대문구의 만성적 주차난으로 이미 많은 구민께서 불편을 겪고 있음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상 및 지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주차 공유사업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과 주차행정과장님과 함께 다 같이 직접 민원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시행된 사업이 또 다른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빚게 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비단 특정 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구민의 주차 공간 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금년 10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장안동의 대표적인 거리형 축제인 세계거리춤축제는 아직까지 개최 여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순수한 의도를 믿고, 재단의 전문성을 믿고, 믿고 기다려온 결과가 올해 축제를 개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재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민과 관의 주도권 싸움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치부심으로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내년 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장안동 구의원 정서윤이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초부터 전문성을 가진 총 감독을 공개 공모를 통해 선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총 감독을 중심으로 세계거리춤축제를 유지할 것인지, 춤이라는 장르에 한정 짓지 않는 거리 예술 축제로 매년 주제를 설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축제의 방향성부터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역 명소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축제 사이트와 근 거리에 있는 중랑천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연계해서 영화제 개최와 수변을 활용한 수변공연 무대 운영을 고민해 주십시오.

세 번째, 유사 축제를 준비하는 타 문화재단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명실상부 세계라는 타

이들을 달고 있는 축제인데 해외 공연팀 초청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리 예술 축제를 수차례 개최해 왔던 축제 프로그래머에게 해외 공연팀을 유치하는 방법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수한 해외 공연팀 초청에는 항공료를 포함해서 많은 개런티가 소요되므로 국내 거리 예술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이 연계해서 십시일반하여 팀을 초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모두 다 타 문화재단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네 번째, 명확한 공모를 통해 콘텐츠의 질을 최대한 상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축제뿐 아니라 동대문구 문화예술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공연하시는 마술사님, 어떤 기준으로 누가 공연을 채택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에 출연하는 공연팀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발하시는 겁니까? 공개적인 공모 방식으로 공연팀을 모집하고 공연을 세분화해서 전문 공연팀, 지역 주민 공연팀으로 나누어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지역 예술가에게는 무대에 설 기회를 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있는 축제를 기획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동대문문화재단은 하루라도 빨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전환하십시오. 이번 세계거리춤축제 개최에서 민과 관의 협상이 어려웠던 부분은 유상부스 운영이었습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유상부스를 운영하지 않겠다, 축제 사이트를 최소화해서 무대 공연 위주로만 하겠다고 하였고, 민간인 세계거리춤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의 규모화를 위해서 부스 유상 판매는 필요하다,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면 부스 유상 판매금 관리는 모두 재단에게 맡기겠다고도 했습니다.

거리형 축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소 3억에서 5억의 예산이 있어야 양질의 콘텐츠와 안전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축제 예산 편성 추이를 보았을 때 축제에 최대한 많이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5,000만원 내외입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국내외 타 축제 사례처럼 스폰서를 유치하여 유상부스를 판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거리춤축제의 여건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적정한 금액의 부스 유상 판매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민간에서 관리하자니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이 우려된다 하고 재단에서 관리하자 하니 현재 동대문문화재단은 수익사업을 신고하지 않아서 세입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대화를 한 시점이 한 달 전 쯤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문화재단은 수익사업 신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화면에 보이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이 부흥하면 지역 상권은 자연스럽게 활성화 됩니다.

집행부와 민간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의 편의성보다 가치의 극대화를, 각자의 명분보다 주민의 만족감을 우선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존경하는 3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 의원입니다.

지난 엄청난 폭염이 가실 줄 모르더니 어느덧 계절의 무성함으로 축제의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10월은 각 동별 동민의 날과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행사에는 막대한 구민의 혈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의 행사 진행 업체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인 효율성 있는 행사와 집행액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신동 동민의날 행사는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10월 7일로 협의하여 날짜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 포스터 200장과 현수막 10장이 다 만들어진 상태였습니다. 15일이 지난 후 구청장님은 참석할 수 없다는 사유로 날짜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사 진행 업체에서는 계획과 스케줄이 있는데 갑자기 일정 변경으로 차질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확인한 결과 서로의 의견 전달이 일원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이 부득이하게 불참할 시에는 부구청장이 이를 대행함은 업무의 소관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구청장님이 참석해야 하는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업무 일정 스케줄을 확인하지 않고 전달 받은 것은 업무의 부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의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주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분권시대에 주민자치의 주체가 선진 민주주의로 가는 초석이라고 합니다. 집행부는 용신동 주민 분들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다 만들어진 포스터와 현수막을 보십시오. 완전한 가을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써 재고할 부분입니다.

주민 분들은 여·야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주민 분들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과정의 오류로 인한 추가적인 과금은 오로지 주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금년도 제10회째를 맞이하는 세계거리춤축제 취소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보도로 알았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동대문구의회는 불통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방관으로 시·구 예산이 확보된 부분을 집행부는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한 사안인데 사전에 계획과 방안 없이 행사 한 달 전에 준비 미비와 춤축제의 퇴색 일환으로 행사 취소로 인한 시 예산 불용처리와 구민 분들의 욕구를 저버린 행정은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연초에 계획과 방안을 위해 TF를 꾸렸어야 했는데 준비성 없는 행정력의 질타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춤축제로 인해 지역경제 살리기 역점으로 민관 협력 개선, 효율성 그리고 문화 콘텐츠 영역의 활성화로 연속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의 부실이 동대문구의 발전과 주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주민을 기준 삼아 정확한 계획과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에서 민선8기 취임 이후 구민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필형 청장께서 매 기념일마다 구민들에게 보낸 MMS입니다. 구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움직임, 적극적인 행정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민과 합의되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9일 한글날까지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단순한 기념일 인사를 건네기 위해 소요된 예산은 3,613만 6,38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예산을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효용가치가 높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설과 추석같은 대표적인 명절인사까지는 통상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어버이날, 성년의날, 모든 기념일마다 이필형 청장의 얼굴이 담긴 MMS를 보내는 것이 과연 구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묻고 싶습니다.

발송 횟수도 주목해 주십시오. 최초 취임식 초대에는 1만명이 안 되던 발송자 수가 2023년 설날을 기점으로 3만명이 훌쩍 넘어서고 어버이날에는 10만여명, 그 이후에는 7만명 이상에게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예측컨대 전입신고 시 구정 정보와 관련된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동의한 것은 구정 정보이지 구청장의 인사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에서 발송하는 구정소식 뉴스레터는 3만여명이 수신을 하는데 구청장 인사 메시지를 수신하는 분들은 2배가 넘는 7만명인 것도 의문입니다. 이어서 이 문자는 어떤 비용으로 발송되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정보화 역량강화,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포털 웹사이트 운영' 비용에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장 인사 메시지가 스마트도시와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전자구정과 포털 웹사이트 운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예산서를 아무리 둘러봐도 구청장 인사 문자발송 비용이라는 글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깜깜이 예산집행, 이제는 근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디자인 분야 전문가인 본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장 인사 메시지와 우리 구가 구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행사 정보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물론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겠지만 구청장 인사 메시지의 디자인과 가독성이 좀 더 나아보였습니다. 어떤 사안이 더 중요한지, 무엇에 더 힘을 실어야 하는지 우리 구 공무원들도 분명 아실 텐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인사 메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 메시지보다 더욱 중요한 구정 정보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인사 메시지를 구민들의 세금으로 보내시려면 사전에 예산편성에서 합의를 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의 인사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7만여명이 넘고 우리 구정소식 뉴스레터를 받는 사람은 3만여명 남짓입니다. 본 의원만 해도 구청장 인사 메시지는 문자로 받고 있는데 뉴스레터는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우리 구에서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는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답십리2동 주민들조차 현대시장에서 맥주축제를 하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에게 유익한 소식을 전하는데 힘써 주십시오. 진짜 구민을 위하는 문자 발송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 의원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외대앞역 인근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의 합성어로서 일반 골프를 재편성하여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스포츠는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적으며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 없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어 취미생활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파크골프장은 370여개이며 전국 회원 수는 2022년 106,000명으로 2021년 64,000여명에 비해 66% 증가했습니다. 이는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구의 파크골프장 현황을 살펴보면 장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천 제1체육공원 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200명이 이곳을 이용했습니다. 이렇듯 파크골프장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장소는 한 곳뿐이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이문동 주민들은 중랑천 제1체육공원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용객의 분산과 편리성을 위해 이화교 부근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한다면 일부만이 아닌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대문 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화교 부근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다음은 외대앞역 광장과 2번 출구 앞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외대앞역 광장은 동대문 구민과 이문동 주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성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로 인해 문화공연 시설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2번 출입구 주변 역시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위협을 받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이용자들도 자전거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또한「동대문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더욱이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선포한 동대문구의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추진한다면 주민 복리 향상과 더불어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일거양득의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께서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성운 의원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1동 장성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청의 비영리 민간단체의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0회 세계거리축축제가 당초 계획대로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여 년 전 처음 개최된 세계거리축축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장안동 지역 상인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진 순수 민간축제입니다. 장안동 상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축제로 당시 불법 안마시술소를 없애는 과정에 죽어버린 장한로 일대의 상권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로 많은 상인분들의 참여와 호응을 받았습니다.

민간이 주도한 행사로는 드물게 큰 성공을 거두자 이후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구청에서는 매년 2,000에서 3,00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축축제위원회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연기 나는 음식 판매와 주류 판매 등을 금지시켰고, 분양받은 부스 되팔기 등 많은 부조리를 없애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되었고 「동대문구 비영리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며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구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춤축제 예산 3,000만원을 집행하라고 문화관광과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과에서는 춤축제위원회가 예산을 받지 않기로 하였고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예산도 불용처리했습니다.

춤축제위원회는 예산을 안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안 줘도 좋으니 축제를 개최만 하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올해 10월 열 번째로 개최하기로 널리 알려진 춤축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민들은 도대체 왜 개최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 춤축제위원회가 제출한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일부러 심의를 하지 않고 보류하면서 개최 예정 기일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춤축제위원회에서 지난 5월 10회 세계거리춤축제를 10월 7일부터 9일 3일간 진행하자는 의견으로 사업계획서를 구청과 문화재단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7월 19일 문화재단에서는 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무시한 채 10월 6일 또는 10월 7일 하루만 장안사거리 주변에서 문화재단 단독 주관으로 개최하겠다고 위원회에 통보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춤축제위원회에서 관리하겠다는 의견으로 재협상을 제출하였으나 이마저도 문화재단은 거부하여 동대문구의회가 춤축제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대변하여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 주재 회의가 열렸고 구청장은 10월 7일부터 10월 9일 3일간의 축제 개최는 어려우니 10월 21일, 22일 개최하라고 춤축제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재단에 개최를 지시하였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구청장의 지시마저 거부하였고 결국 춤축제위원회 단독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께서도 지난 취임식에 춤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춤축제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나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춤축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월 22일, 10월 4일, 10월 11일 발송된 공문인 춤축제위원회의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요청 건에 대해 모두 무응답으로 대응하여 결국 2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10회 세계거리춤축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축제 개최 기일을 10월 28일로 연기하겠다는 춤축제위원회의 공문에도 무응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본 의원이 문화관광과에 문의하니 춤축제위원회에서 축제개최를 하지 않겠다고 협의했다. 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춤축제위원회에서는 '권용순' 행사 준비위원장을 필두로 이번에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1월 4일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답십리촬영소의 역사성과 장소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는 서울 국제 어린이 창작문화제를 문화재단에서 지원은 못해줄마정 이와 유사한 답십리영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상당수 주민들은 민간이 주최한 성공적인 축제인 세계거리춤축제와 어린이 창작문화제를 동대문구 문화재단에서 가져가려다 안 되니 구청에서 의도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행사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더 이상 유사한 행사를 만들지 말고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 주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속히 당장 오늘이라도 안전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은 물론 지난 8월 구청장님과 구의장 간담회에서 약속한 대로 축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확보된 시비와 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지난 취임식에서 춤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해 온 동대문구의 상징적 축제가 무산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거리춤축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본 의원은 동대문구 소속 위원회의 분석을 토대로 전 세대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행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 위원회는 부서별로 중요한 심의나 의사결정을 할 때 개최가 되며 현재 총 위원회 수는 125개로 각 위원회는 관계부서 공무원과 간사, 구의원과 주민들로 구성됩니다. 총 위원 수는 1,480명으로 이중 공무원과 간사, 구의원을 제외하고 위촉된 주민들 중 생년월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던 567명에 대해 연령대 구성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연령대 구성 현황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동대문구 인구현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다음 보시는 페이지는 생년월일 정보가 파악된 1차 연령대 구성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더 정확한 통계를 위해 지난주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29세, 39세 이하의 위원 수가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인원 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9세 이하와 39세 이하 인원에 대한 정확한 값을 파악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은 29세 이하는 1,480명 중 21명, 39세 이하는 1,480명 중 34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대비 각각 1.4%, 2.3%에 겨우 미치는 수치입니다. 29세 이하 총 21명 중 20명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 1명은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39세 미만 5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청년정책위원회 소

속이며 위 2개의 위원회를 제외한다면 29세 미만은 1명도 없습니다. 30세부터 49세 구성비도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39세 이하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 16세부터 39세 인구비율은 약 34%인데 1,480명의 위원 중 2.3%만 동대문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 기회를 열고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위원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각 위원회별 39세 이하 위원을 1명 이상 의무 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비율을 그대로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듣고 전 세대의 의견을 망라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세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전 세대 참여가 용이하도록 회의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보통 회의가 열리는 시간은 평일 낮 시간대입니다. 학업과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세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많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과 주말 시간대에도 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 모집 시 다양한 방식의 공개모집을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대문구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제외하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위원회의 활동성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다수의 위원회가 오랫동안 회의록이나 추진경과 등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면 구민들이 위원회 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고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제언은 특정 세대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위원회를 통해 전 세대가 모여 서로의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가 세대를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다른 관점을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제언은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김재겸’, ‘김민규’, ‘이서정’, ‘최준명’, ‘김봉준’ 다섯 명의 청년들과 약 두 달간 함께 고민하였고 그 결과를 구청장과 집행부에게 전달합니다. 다섯 명의 청년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1,480명의 위원 연령 분석에 도움을 준 ‘최한라’ 정책지원관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 의원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전농동·답십리1동의 장성운 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대문구의 미래는 11,856개의 청년기업입니다. 냉철히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동대문구는 브랜딩, 명소, 획기적인 사업 모두가 부족한 실정으로 동대문구만의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적 자원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동대문구도 청년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동대문구 청년 기업 투트랙 육성 및 지원 방안을 제언합니다.

청년기업은 혁신 기술 기반인 청년 스타트업과 생활 밀착형 사업을 하는 청년 소상공인으로 나눕니다. 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은 따로 또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맞춤형·단계적·장기적 지원. 업태와 업력에 맞춰 장기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합니다. 청년스타트업은 업력에 따라 예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눕니다. 현 정책은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나 동대문구는 투자가 줄어드는 시점 즉 3~7년 차 데스벨리 구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일례로 광운대 산학협력단은 혈당체크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해 40억을, 2차 전지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해 30억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각각 40배, 600배의 투자 실적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잘 될 수는 없지만 실패가 두려워 시작도 안 한다면 우린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업력 7년이 넘은 스타트업이 자생하지 못하면 폐업 수순을 밟습니다. 다만, 한 개 기업의 경우 관내 정책을 전달해 주거나 창업센터에서 연계를 시켜주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지만 폐업하

지도 못하는 좀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자영업자 연계 모델 구축. 동대문구청이 중심이 되어서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자영업자 간의 연계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청년창업센터 내 청년스타트업만 해도 200여 개에 달합니다. 이미 서울시립대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 학생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연계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테이스트널리티라는 청년 스타트업은 타이머 할인티켓 판매라는 소상공인 전용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발굴해 매칭하는 윈윈 전략을 써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형 구청장님! 청년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중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폐업률이 장년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1년 통계청의 통계연구는 청년기업의 생존기간이 2.3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짧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20년 중기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기업의 자금확보 부담이 70.7%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2019년 중소기업연구원의 보고서는 중소기업 경영 실패의 원인으로 48.5%가 판매의 어려움, 41.8%가 적자의 문제를 꼽습니다.

청년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경험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자본금,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와 전국의 지자체는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왜 주저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동대문구가 육성한 청년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동대문구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사활을 걸어 동대문구의 미래를 그려주시시오. 철저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선 일자리청년과와 경제진흥과의 협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청년기업의 업무를 맡고 있는 팀을 통합한 TF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만 보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도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서 의원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필형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 장안1·2동 국민의힘 이규서 의원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우리 구의 문화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8년 설립되어 지역의 전통문화를 이어가면서 구민의 새로운 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이에 동대문구에서도 2022년부터 여러 도서관과 답십리영화 미디어아트센터 운영을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지원을 크게 늘려 왔습니다. 2021년 정원 7명, 예산 16억 7,000만원에서 2022년 정원 31명, 예산은 29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2023년 정원 39명에 44억 2,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단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서관 위탁을 일원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부터 답십리영화미디어센터의 경우 많은 기대 가운데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평가가 많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문화재단의 운영이나 사업에 대해 우려가 있지만 동대문문화재단에 애정을 갖고 문화재단의 인사관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관리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퇴사율입니다. 본 의원이 재단에 요구해 최근 3년 동안의 퇴사율을 받아본 결과, 2021년도 퇴사율 0%, 2022년도는 26명 중 5명이 퇴사해 19%의 퇴

사율을 보였습니다. 2023년은 아직 해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2명 중 10명이 퇴사해 무려 퇴사율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국장님! 이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관리하는 부서원의 30%가 한 해에 퇴사한다면 어떤 기분이며 부서원의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의 심각성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퇴사율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또한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통해 받아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의 퇴사율은 2021년 1%, 2022년 3%, 2023년 5%로 낮습니다. 사실 2023년 5.2%인 것도 다른 곳에 이중취업 된 직원 5명이 입사 1주일도 되지 않아 퇴사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제외하면 2.3%로 문화재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퇴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시설관리공단이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양 기관의 처우나 내부시스템 정비 상황 등 구민을 최일선에서 만나고 있는 두 기관의 상황과 비교해서 문화재단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기관도 설립 이후 일정 기간 과도기가 필요하고 문화재단과 같이 최근 2년 사이에 급격히 비대해진 기관의 경우 더욱더 인사관리에 신경 써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단의 최근 퇴사율은 그냥 과도기 결과로 치부하기에는 비정상적인 수치이며 이에 대해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 관리부서인 문화관광과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안녕하십니까? 박남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대문구의 현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관한 지 약 반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OU체결, 포럼·엑스포·교육 참석, 타 지자체와의 교류는 구청이나 구의회에서 추진하면 되는 일이고 특강 참석은 센터장 개인 자격으로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일이라면 대학이 아닌 지역의 비영리 기관이 오히려 더 잘 했을 것입니다. 센터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이문동을 지나다가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나가신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적어도 현수막이 게시되기 전에 센터장을 교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많고 탈 많은 탄소중립지원센터,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겁니까?

둘째, 동대문구청은 지난 7월 7일 각 정당에 보호구역에 대한 현수막 게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은 며칠 전 본 의원이 시조사 삼거리와 청량리역사 앞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현수막 금지구역에 동대문구청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7월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이고 행정 집행에 앞서 법령을 먼저 준수해야 하는 동대문구청이 나는 안 지킬 테

니 남은 지켜라. 이거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현실적인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동대문구청부터 술선수범하여 철저히 지키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행정집행의 권위가 설 것입니다.

셋째, 2024년 동대문구 체육진흥과의 예산안은 약 75억원입니다. 본 의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해 체육 분야 예산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주민의 소리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탄원 1. 저는 동대문구에서 나고 자라 태권도인의 꿈을 키운 20대 청년입니다. 지역의 태권도 인프라가 발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우리 구청의 채용이 사전 내정 자들로만 발탁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라는 스포츠가 본래의 스포츠 정신에 맞도록 채용 과정 역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원 2. 공개채용 없는 내부채용이 말이 됩니까? 짜고 치는 탁상행정, 구민이 무섭지도 않다는 말입니까? 부정부패로 시작되는 실업팀이 창단된들 구청 예산만 낭비될 거 뻔합니다. 만약 이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여러 매체에 제보까지 해서 부정부패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민 없는 구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탄원 3. 창단이 되기 전에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구청과 비서관이 가깝다는 관계로 직권남용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부분 여처구니가 없습니다. 감독 A, 코치 B를 내정하고 선수들과 구청장이 간담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공채와 규정 절차 없이 가까운 사람들 내정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이러한 부분을 동대문구 구민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구민이 있고 구청이 있는 겁니다.”

예, 태권도 신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이러니까 낮의 구청장은 이필형, 밤의 구청장은 아무개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신설을 위해 2023년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약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사실이든 소문이든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잡음이 있는 사업,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러한 구민의 세금을 동대문구 태권도협회가 주도해서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체육회와 연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운동하기 좋은 동대문구,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드는 게 옳지 않습니까?

넷째, 지난주 월요일 자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30세대 비중이 60대 이상보다 더 늘어난 지역구는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동대문 갑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회기, 휘경, 이문지역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이 지역, 구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기본조례 등을 통해 회기·휘경·이문지역 특성에 맞는 전국 최고의 청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2동, 답십리 1동 김용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태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는 이필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34만 구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후 여러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34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 설립된 동대문구체육회는 현재 총 26개의 종목단체와 347개의 클럽, 17,35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4년 동대문구체육회 예산액은 약 5억 4,000만원에 달하며, 구민 걷기 대회, 서울시민 대축전 등 행사 개최와 체육꿈나무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14명의 사무국 직원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회는 2003년 구민회관을 신축사업으로 퇴관 후 적절한 사무공간 없이 벌써 4번째 사무실 이전을 앞두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다사랑행복센터로, 2021년 계종빌딩으로, 2023년엔 舊청량리 청소년독서실로 이전하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무국 직원들은 구민의 생활 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비좁은

공간, 열악한 화장실 등 버려진 공간에서 체육회 직원들은 언제 다시 이주해야 될지 모르는 걱정 속에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들의 자긍심과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동대문구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공간 건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체육회 및 생활체육단체의 사무공간 건립이 제한될 경우 차선택으로 기부채납 건물로의 이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통상 재건축을 하는 건물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재건축을 통해 추가된 공간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는데, 최근에는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추세입니다.

동대문구에서도 기부채납된 일부 건물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센터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입주한 공간의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 우리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땀 흘려온 동대문구체육회의 단독 건물과 종목단체별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종목단체에 대한 형평성 없는 예산 지원입니다. 2023년 체육종목단체에서는 총 36건의 대회 개최 비용 지원이 있었는데, 건마다 모두 다른 기준과 금액으로 지원되어 단체와 스포츠인들 사이에서 불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선 해당 사항은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내역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0명이 참여한 A종목은 319만원, 다음 455명이 참여한 B종목은 759만원, 다음 400명이 참여한 C종목은 1,100만원, 다음 200명이 참여한 A종목의 지원금은 200만원, 마찬가지로 200명이 참여한 B종목은 308만원, 마지막으로 동일 인원 참여 C종목 지원은 440만원, 이것이 참여 인원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한다는 집행부의 기준입니까?

종목에 따라 필요한 공간이나 사용하는 기구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종목별 지원금 현황을 보게 되면 기준 없이 일부 종목에 지원이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의 차이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목별 단체들은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 기본 경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원들이 사비를 털어 대회 개최 비용을 보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해당 예산은 구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대회 개최에 꼭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남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모든 종목이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형평성 있는 기준 수립과 기본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를 위한 예산 증액 및 현실적 사용가능 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디 우리 구민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고 건강증진과 체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안건을 능률적이고 전문분야별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이며, 본회의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적으로 심사하는 예비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동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21회 정례회부터 제325회 정례회까지 소관부서별로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위 원 장 : 이강숙 의원
- 부위원장 : 정서윤, 성해란 의원
- 위 원 : 김용호, 노연우, 안태민, 이규서 의원



< 주요 처리 안건 >

- ▶ 제321회 정례회~제325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2023. 동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의 건
-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위 원 장 : 손세영 의원
- 부위원장 : 김용호, 이규서 의원
- 위 원 : 정성영, 최영숙, 박남규, 김세종, 정서윤, 성해란 의원



< 주요 처리 안건 >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의 공공질서 유지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 동대문구↔강원 평창군 우호교류협정 체결 계획 사전 보고의 건
- ▶ 동대문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
-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7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 ▶ 종합감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 철저
- ▶ 구민감사관 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개선방안 강구
-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의 전면 개선 검토
- ▶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보고 철저
- ▶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 및 배부 방안
- ▶ 언론 간담회 등 비용 지출에 신중 - [권고사항]
- ▶ 청사 및 통·반장 일간지 명확한 구독 기준 설정
- ▶ 홍보매체 운영의 질적 제고 방안 강구 - [권고사항]
- ▶ 특정업체 편중 수의계약 지양
- ▶ 남북교류협력기금 실질적 운용을 위한 용도 다변화 필요 - [권고사항]
- ▶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권고사항]
- ▶ 내실 있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추진
- ▶ 직무 적합성과 직렬별 균형을 감안한 보직부여 필요 - [권고사항]
- ▶ 다양한 직급에 걸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 필요 - [권고사항]
- ▶ 고용형태 및 업무배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강구
- ▶ 청풍유스호텔 운영 활성화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한 TF 추진
- ▶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의 실효성 개선 필요 - [권고사항]
- ▶ 주민소통회 개최 시 지역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필요
-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내실화
- ▶ 합리적인 직능단체 관리 및 실효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
- ▶ 반장 해촉 및 연임기준 마련 등 규정 필요
- ▶ 자원봉사단체 후원금(물품) 관리 철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 각 동별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강사료 현실화
- ▶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량리동 현(現) 청사 활용방안 재검토
- ▶ 조속한 회기동 청사 신축 추진 - [권고사항]
- ▶ 동대문문화원, 동대문문화재단의 명확한 역할정립 등 필요
- ▶ 더 나은 봄꽃축제 개최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 ▶ 동대문문화원, 동대문문화재단 이사회 구성 및 직원 인사 개선 필요
- ▶ 적법 절차를 준수한 마을문화제 개최를 위한 지원 강화

- ▶ 골목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사업 추진 - [권고사항]
- ▶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법 마련 촉구
- ▶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 ▶ 관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활성화 방안 검토 - [권고사항]
- ▶ 답십리고미술상가에 대한 소모적 예산 지원 지양 - [권고사항]
- ▶ 구립 도서관 도서 납품체계 개선 필요
- ▶ 선농단 역사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 ▶ 만족도 높은 관광코스 운영을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 - [권고사항]
- ▶ 도서관 과잉공급 지양 및 통폐합을 통한 용도 변경 추진
- ▶ 구민 생활체육시설 확대 방안 강구
- ▶ 각 종목별 단체의 신뢰도 높은 회원명부 관리 필요
- ▶ 체육 꿈나무선수 육성사업(4개 사업) 지원대상 종목 확대 검토
- ▶ 구민체육센터 시설하자 개선대책 마련 촉구
- ▶ 조례에 근거한 체육진흥기금 운용 필요
- ▶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집행 관리 철저 등
- ▶ 합리적인 학교운동장 주민개방 방안 마련
- ▶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제도·프로그램 운영 개선 등 - [권고사항]
- ▶ 영어체험교실 저소득층 참여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 ▶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실 운영체계 보완
- ▶ 유명무실한 자치법규 폐지·정비 추진
- ▶ 동대문구 주민배심원제 운영 방법 재검토 - [권고사항]
-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혁신 및 내실화 등
- ▶ 공사·용역·물품 계약 하도급 업체 관리방안 마련
- ▶ 창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등 마련
- ▶ 패션봉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건립부지 확보 검토
- ▶ 패션봉제지원센터 봉제·패턴 교육과정 개선방안 마련
- ▶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부서협업 촉구 - [권고사항]
- ▶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개선(라이브커머스, 공공예식장 등) 촉구
- ▶ 청량리 수산시장 이전·관리대책 등 중장기 대응방안 검토 - [권고사항]
- ▶ 공사·용역 계약 하도급 업체 관리 철저
- ▶ DDM 청년창업센터 유니콘 성과관리 철저

- ▶ 다양한 직업군 양성사업 발굴·추진
- ▶ 동대문구 생활임금제 상향 검토 - [권고사항]
-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 오랑을 '구(區)'가 맡는 방안 검토 - [권고사항]
- ▶ 민원다발구역인 금연구역 대상 흡연 단속 강화 촉구
- ▶ 의료접근성 취약 주민 대상 이동건강버스의 오프라인 홍보 강화
- ▶ 어르신 무료개안수술 추진 활성화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수립
- ▶ 보건소 의약품 중 한방진료의약품 구입내역별 관리 철저
- ▶ 치매 진단검사 활성화 방안 필요
- ▶ 동별 방역소독물품 지원 관련 인구 및 취약계층 분포 고려한 방안 검토
- ▶ 산후조리원 시설점검 철저
- ▶ 응급처치교육 확대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 위생교육 미이수 대상 명단 관련 세부 확인 필요
- ▶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철저
- ▶ 동물보호활동 지원의 내실화 방안 강구(권고)
- ▶ 주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반려견놀이터 운영방안 수립
- ▶ 용두문화복지센터 및 책마당 도서관 휴일운영 확대 검토
- ▶ 동대문다사랑행복센터 승강기 안전 관리 철저
- ▶ 동대문구 내 주차 문제 대책 강구
- ▶ 대관실적 관리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 ▶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건물 철저한 관리 등(장안1동) - [권고사항]
- ▶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건물 철저한 관리 등(장안1동) - [권고사항]
- ▶ 꿈나무 영양지원사업(희망복지위원회 주관) 우수(장안1동) - [수범사례]
- ▶ 주민센터 비치물품 철저 관리 등(휘경2동) - [권고사항]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주민복지국, 안전환경국, 주택도시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위 원 장 : 한지엽 의원
- 부위원장 : 노연우, 안태민 의원
- 위 원 : 이강숙, 김창규, 김학두, 서정인, 이재선, 장성운 의원



< 주요 처리 안건 >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용두1구역 6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자게시대 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영장레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전농13구역)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 제5기 (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보고의 건
-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8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보조사업 수행기관(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작성 철저
- ▶ 1인 가구 종합 대책 계획 안내 요청 - [권고사항]
- ▶ 보훈단체 현황 현행화
- ▶ 국가보훈대상자(유족) 지원 강화
- ▶ 보듬누리사업 운영 철저 - [권고사항]
- ▶ 푸드뱅크·푸드마켓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

-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관리 철저
- ▶ 보육교사 1인당 보육 대상 영유아 규정 개정 건의 - [권고사항]
- ▶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 촉구 - [권고사항]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 다문화가족·거주외국인 지원 및 정착 프로그램 관리 철저
- ▶ 우리동네 키움센터 확충 및 정원 조정 건의 - [권고사항]
-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위탁 가정 수시 점검
-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지원센터 분리 운영
- ▶ 경로당 관계자 회계처리 단순화 및 회계도우미 지원 - [권고사항]
- ▶ 경로당 보수 업체 다양화
- ▶ 어르신여가프로그램 추가 운영
- ▶ 동대문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 개선 요구 - [권고사항]
- ▶ 생활안전보험가입 서비스 홍보 - [권고사항]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
- ▶ 재난대비 대응 안내 철저
- ▶ 폭염대비 철저
- ▶ 공공 와이파이의 적합 장소 설치 - [권고사항]
- ▶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 [권고사항]
- ▶ 환경공무원 근로 감독 철저
- ▶ 가로휴지통 적소 배치 및 관리 철저
- ▶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종료 후 운영 방안 마련 철저
- ▶ 복지장안충전소 이용자 안전 지도
- ▶ 공사장 내 소음·분진 민원 관리 철저
- ▶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시 공정한 평가 당부
- ▶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시 지역사회 기여 확인 필요
- ▶ 재개발·재건축시 인접 지역 지중화사업 등 병행 실시
- ▶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 방안 마련 - [권고사항]
- ▶ 건축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유효한 제재 마련 - [권고사항]
- ▶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철저
- ▶ 빈집 안전관리 및 활용 대책 마련
- ▶ 자전거 보관 컨테이너 이동 조치 - [권고사항]
- ▶ 주차단속 직원 관리 철저

- ▶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노력 - [권고사항]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
- ▶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 홍보게시물 적정성 확인 - [권고사항]
- ▶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지 육성 관련 용역 결과 안내 - [권고사항]
- ▶ 구민행복센터 건립 추진 과정 주민 안내 철저
- ▶ 불법노점 정비 시 주민 및 직원 안전 확보 - [권고사항]
- ▶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주민의견 적극 수렴
- ▶ 벽화 등 도시갤러리 사업 대상 선정 시 검토 철저
- ▶ 형평성 있는 동별 이면도로 및 뒷골목 정비사업 추진
- ▶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철저
- ▶ 경남호텔 싱크홀 사후관리 - [권고사항]
- ▶ 동별 하수역류 방지 시설 설치 철저
- ▶ 하천 환경 개선 시 주민의견 적극 수렴
- ▶ 숲 해설 위탁 운영 방안 개선
- ▶ 우리 구만의 개성있는 가로수 보식 - [권고사항]
- ▶ 지역별 특색있는 꽃 식재
- ▶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로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제기동) - [수범사례]



특별위원회 활동

여러 개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2023년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 원 장 : 서정인 의원
- 부위원장 : 성해란, 노연우 의원
- 위 원 : 박남규, 이재선, 정서윤, 안태민 의원

〈주요 처리 안건〉

-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3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 원 장 : 안태민 의원
- 부위원장 : 최영숙, 정서윤 의원
- 위 원 : 김창규, 서정인, 장성운, 성해란 의원

〈주요 처리 안건〉

- ▶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 원 장 : 최영숙 의원
- 부위원장 : 김용호, 이재선 의원
- 위 원 : 이강숙, 박남규, 장성운, 안태민, 정서윤, 성해란 의원

〈주요 처리 안건〉

- ▶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15건)



의정갤러리

○ 2023. 6. 5. 동(洞)행정사무감사



제기동 행정사무감사



답십리2동 행정사무감사



공안1동 행정사무감사



취경2동 행정사무감사

○ 2023. 6. 7.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 2023. 7. 6. 개원 1주년 지역언론 기자간담회



○ 2023. 7. 14.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개원기념식



○ 2023. 8. 21. 을지훈련 격려물품 전달



○ 2023. 10. 11. ~ 13. 동대문구의회 의원 국내 의정연수(통영·거제)



○ 2023. 11. 3. 구(동)간부 및 구의원 체련대회



○ 2023. 11. 8. 정화여자중학교 청소년 의회교실



제9대 전반기 연구모임 활동

○ 선진정책 연구모임



▲ 2023. 8. 대전상옥체육공원 방문



▲ 2023. 8. 삼교시장 방문



▲ 2023. 11. 부산 해운대구 방문

○ 문화관광 발전방안 연구모임



▲ 2023. 10. 5. 안성시 바우덕이축제 벤치마킹



▲ 2023. 11. 8. 산청군 전통의약향노화축제 벤치마킹



▲ 2023. 11. 22. 평창군 문화관광 우수 선진지 현장 답사

○ 녹지공간 조성 연구모임



▲ 2023. 6. 7. 중간보고회



▲ 2023. 11. 6. 순천 현장 방문



▲ 2023. 11. 21. 관내 현장 방문

이태인 의장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 을지훈련 격려물품 전달



▲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 동대문구민의 날



▲ 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 감사의 날

정성영 부의장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 청소년의 밤



▲ 세계한방요리페스타



▲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 한마음 걷기의 날



▲ 답십리1동 어울림한마당

이강숙 운영위원장

(비례대표)



▲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 소기업소상공인회 전통놀이 행사



▲ 제3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 청량리동 한마음축제



▲ 전동중학교 청소년 의회교실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

(제기동, 청량리동)



▲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 청량리동 한마음 축제



▲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 청량리동 경로잔치



▲ 한마음 걷기의 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

(제기동, 청량리동)



▲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 소기업소상공인회 전통놀이행사



▲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 청량리동 한마음축제



▲ 청량리동 경로잔치

김창규 의원

(이문1동, 이문2동)



▲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



▲ 제3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문2동 경로잔치



▲ 제32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김학두 의원

(이문1동, 이문2동)



▲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답십리2동 행정사무감사



▲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 이문2동 경로잔치



▲ 동대문신문 김학두 의원 인터뷰

서정인 의원

(용신동)



▲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 소기업소상공인회 전통놀이행사



▲ 용신동 어울림한마당 축제

최영숙 의원

(용신동)



▲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답십리2동 행정사무감사



▲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 용두동 래미안엘리니티 경로당 개소식



▲ 용신동 어울림한마당 축제

박남규 의원

(회기동, 회경1동, 회경2동)



▲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장안1동 행정사무감사



▲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 회기동 경로잔치



▲ 동대문 임신부의 날

김세종 의원

(회기동, 휘경1동, 휘경2동)



▲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 바르게살기운동 탄소중립 홍보캠페인



▲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 한마음 걷기의 날



▲ 휘경2동 한마음 어울림 축제

김용호 의원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 제32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 전농1동 경로잔치



▲ 참사랑실천모임 송년나눔행사

이재선 의원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 제321회 정례회 제기동 행정사무감사



▲ 제322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 바르게살기운동 탄소중립 홍보캠페인



▲ 전농1동 경로잔치

장성운 의원

(전농1동, 전농2동, 답십리1동)



▲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 전농1동 경로잔치



▲ 답십리1동 어울림한마당

노연우 의원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제기동 행정사무감사



▲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 한마음 걷기의 날



▲ 답십리1동 어울림한마당

안태민 의원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 제32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 답십리2동 경로잔치



▲ 장안1동 어울림축제

이규서 의원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회경2동 행정사무감사



▲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 한마음 걷기의 날



▲ 답십리현대시장 동행축제

정서윤 의원

(답십리2동, 장안1동, 장안2동)



▲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휘경2동 행정사무감사



▲ 제32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 장안1동 어울림축제



▲ 동행축제 답십리현대시장

성해란 의원

(비례대표)



▲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 제321회 정례회 장안1동 행정사무감사



▲ 제32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 세계한방요리페스타



▲ 휘경2동 한마음 어울림 축제

연락처 및 오시는 길



[02565]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TEL : 02)2127-5497, 5439~40 FAX : 02)3299-2611



2호선 용두역 3번출구
1호선 제기역 3번출구에서 하차 하신 후 도보로 10분거리



※참고 장안동, 답십리동, 전농동에서 오시는 분은

- 파랑(간선)버스 : 130, 303, 370, 145, 721
- 초록(지선)버스 : 1227, 2015, 2112
- 빨강(광역)버스 : 9301 을 타고 구청앞에서 하차

※참고 용신동에서 오시는 분은

- 파랑(간선)버스 : 303, 370, 721
- 초록(지선)버스 : 421
- 빨강(광역)버스 : 9301 을 타고 구청 맞은편에서 하차

※참고 이문동, 휘경동, 청량리에서 오시는 분은

- 파랑(간선)버스 : 105, 202, 147, 201, 260, 261, 270, 271, 272, 720, 420
- 초록(지선)버스 : 2221, 2233



열린의회

온라인의회

동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안내, 의정활동, 의회소식, 회의록, 열린광장 등
의회의 다양한 정보 검색은 물론, 동대문구의회의 대외적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구민 참여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동대문구의회 PC 홈페이지(<https://council.ddm.go.kr>)



▲ 모바일 홈페이지
(council.ddm.go.kr)

방 청 안 내

동대문구의회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신청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기 개최 전일 까지 인터넷 신청
※ 당일 신청의 경우 본회의 개최 전 방문신청서 작성

방청절차 방청신청(홈페이지)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방청문의 동대문구의회 사무국(☎ 02-2127-5496)